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1일)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출가, 짧지만 소중한 경험되길

어머니에게 불교 영향을 받아서, 진로와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저마다의 출가 동기는 다르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같다. 조계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 현장. 5박 6일간의 행자생활을 시작하는 청년행자들이 은사스님들로부터 행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아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색다른 불교 만나는 '캠플스테이'가 뜬다

〈캠핑+템플스테이〉

서산 보원사, '백패킹 캠플스테이' 호평 속 확대

쓰레기 없는 '클린 하이킹' 지향

대웅전 옆 텐트, 보원사지 만끽

참가자 대부분 만족도에 만점 줘

보원사지 활용한 캠핑, 이색 경험

"2030 참가자 많아 포교 긍정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서산 보원사의 '백패킹 캠플스테이'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해 확대 운영된다. 사찰의 시설을 활용한 기존 템플스테이 형식을 벗어나 보다 자연과 깊게 호흡하고 불교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포교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서산 보원사는 현재 5월 25~26일, 6월 8~9일, 6월 20~21일 총 세 차례에 걸친 캠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회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 안팎.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캠플스테이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클린 하이킹'이다. 1일차와 2일차에 모두 포함되며 1일차엔 개심사-백암사지-보원사에 이르는 11.2㎞의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코스를, 2일차엔 보원사-개심사 총 4㎞의 간단한 구간을 걷는다. 하이킹을 하면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1박2일간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뿐만 아니라 캠플스테이에선 △사찰음식 만들기 △연잎차 다도 △숲속 필라테스 △서원탑 만들기 △반딧불이 명상 △폐청바지를 이용한 버들치풍경 만들기 △그림자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웅전 옆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역사문화가 가득한 보원사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지난해 기준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90% 이상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다. 9점을 준 참가자가 손을 꼽을 정도인 데다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준 참가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 회당 적게는 4~5명, 많게는 10여 명이 참가해 자연을 만끽하고 불교문화를 부담 없이 느끼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참가자들은 "스님의 목탁소리에 기상할 수 있는 캠프사이트는 어디에도 없다" "아쉬운 건 1도 없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보낸 힐링 자체였다"고 극찬에 가까운 후기를 남겼다. 공양게의 의미를 알게 된 점, 서원탑 만들기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점, 낯선 사람들과 비슷한 취미로 유대감을 쌓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 참가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캠플스테이 '홈커밍데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플스테이를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했지만 26명이 다시 찾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는 개인 장비를 직접 챙겨서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백패킹에 관심은 있지만 개인 장비가 없는 이들을 위해 장비 대여를 하기로 한 것. 그러자 지난달 모집 공지를 한지 3~4일 만에 25명이 신청해 인터뷰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해야 할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캠플스테이는 새로운 포교방편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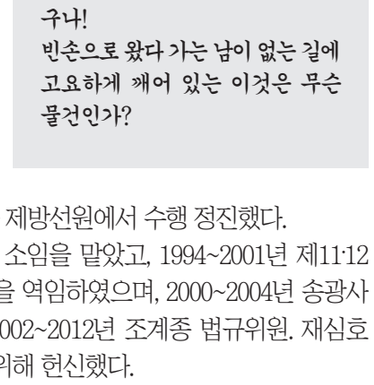
김선임 종무실장은 "참가자 대부분이 비불자다. 종교색보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며 "2일차 일요일 필라테스를 할 때 아빠와 함께 참여한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교회에 가니 이제는 '절에 가자'고 한다는 후문을 전해 들었다. 20~30대 참가자가 많고 가족도 함께할 수 있기에 포교 관점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원적

5월 1일 삼일암서 입적…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선호당에 분향소 마련

5월 5일 오후 2시, 송광사서 영결 · 다비식 봉행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사진〉가 5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송광사는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가 송광사 삼일암에서 5월 1일 오후 8시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원적했다"고 밝혔다.

대종사의 장례는 조계총림장으로 엄수됐다. 분향소는 송광사 선호당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5월 5일 오후 2시에 송광사 승보전 앞에서 엄수하고, 다비는 송광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차주상보〉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현봉 대종사는 1974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75년 구산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백련사, 해인사, 극락암, 봉암사, 수도암, 월명암, 정혜사 칠불사,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91년 조계총림 유나 소임을 맡았고, 1994~2001년 제11·12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2004년 송광사 주지와 정광학원 이사, 2002~2012년 조계종 법규위원. 재심호계위원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92년에 송광사 광원암을 중창해 이곳에서 정진했으며, 2019년 11월 1일 산중총회에서 제7대 방장으로 선출되어 11월 5일에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조계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대종사는 최근까지 보조국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 불사는 물론 보조학술상 제정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아울러 SNS를 통한 포교 활동과 송광사 홍보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송광사 유튜브 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저서로 〈선에서 본 반야심경〉 〈너는 또 다른 나〉 〈운옥재문집〉 〈솔바람 차 향기〉 〈밖에서 찾지말라〉 〈일흔집〉 등을 펴내고, 〈용악집〉 〈구산선문〉 〈수심결〉 등을 편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열반게

曺溪月落住巖湖
天地暗黑孤鶴聲
空手來去無生路
惺惺寂寂是何物

조계의 달이 주암호에 잠기니
천지가 어두운데 학이 홀로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 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깨어 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圓 寂

大韓佛教曹溪宗 曹溪叢林 松廣寺

方丈 南隱堂 玄鋒大宗師 叢林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께서 세연이 다 하시어 **불기 2568(2024)년 5월 1일 (음 3월 23일) 오후 8시** 전남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삼일암에서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원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도대표 연제 합장

■ 분 향 소 : 전남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선호당
■ 영 결 식 : 불기 2568(2024)년 5월 5일 (음 3월 27일) 오후 2시
※보조국사 종재 행사 관계로 오후 2시에 영결식 봉행
■ 영결식장 : 조계총림 송광사
■ 다 비 장 : 송광사 연화대
■ 문의 및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조화와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총림장 장의위원회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로 전법 확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행자 9명 단기출가

5박 6일간 행자 생활 체험
예불·교육·정진·운력 등 나서
5월 5~10일 2차 출가 계획
조계사 봉축 대표행사 예고


조계사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에 참여한 행자들이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청년·대학생들의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세대를 향한 전법 확대에 나섰다.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29일 저녁 7시 대웅전 기단 앞에서 '불기 2568년 봉축 청년·대학생 발심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청년·대학생 발심출가는 미래세대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사가 새롭게 기획한 5박 6일 여정의 프로그램이다.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1차 발심출가에는 남행자 4명, 여행자 5명 총 9명의 행자가 선발됐다. 만 19~30세인 행자들은 각각 △도광(박찬용) △심정(이한울) △세운(김성민) △청화(이재현) △법선행(이채윤) △일법행(김서현) △심일행(김연경) △문수화(윤석민) △능선화(박순빈)이라는 법명을 받아 행자로서의 첫 발을 뗐다. 다만 짧은 단기출가 이후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삭발의식은 머리카락을 일부만 잘라내는 약식으로 대신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어린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고 출가한 청나라 순치황제(1638~1661)의 이야기를 소개한 뒤 순치황제가 출가할 때 읊은 시를 인용해 출가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속의 100년 3만6000일보다 출가의 반나절이 더 낫다'는 뜻의 '백년삼만육천일(百年三萬六千日) 불급승가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을 설명하고 "오늘부터 6일간의 출가지만 하루의 삶이 10년, 100년의 삶일 수도 있다. 멋지고 아름다운 출가의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며 행자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행자들의 은사로는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템플국장 선해 스님, 신도부국장 지담 스님이 배정됐다. 스님들은 각각 3명의 행자들의 은사로서 6일간의 생활지도를 맡았다. 은사스님들은 출가를 결심한 행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서로 좋은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수승한 발원이 오래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처님을 비롯해 은사스님, 부모님을 향해 삼배를 올린 행자들은 개인 평상복이 아닌 행자복을 입고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올리며 행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행자들은 이튿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차담 시간을 가졌다. 진우 스님은 행자들에게 단기출가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이채윤 행자는 "어머니께서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매주 새로운 불교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며 "자연스레 불교에 관심도 생기고 어머니와의 대화 폭도 넓히고 싶어 단기출가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현 행자는 "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다 올해 귀국했는데 진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자들의 발심을 경청한 진우 스님은 "출가란 물리적인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출가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행자들에게 직접 염주를 채워주며 행자들의 수행과 미래를 응원했다.

불자대상에 최영철·고광록·구본길·임혁·김동준

5월 15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최영철 작곡가 | 고광록 변호사 | 구본길 펜싱선수 | 임혁 배우 | 김동준 배우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불기 2568년도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영철 작곡가, 고광록 변호사, 구본길 펜싱선수, 임혁 배우, 김동준 배우를 선정했다.

최영철 작곡가는 법회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삼귀의, 사홍서원을 작곡하고 약 2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작곡해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이끌어 온 불자다. 또한 전 대전 관현악단, 충남대 관현악단과 향음 관현악단 지휘자이자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장, 한국관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22년에는 제6회 불교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광록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며 신도회를 화합으로 이끌었다. 특히 2020년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범도민환수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2022년 제393회 국회 본회의에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가결을 이끌어 오대산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환지본처 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구본길 펜싱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펜싱선수로 금메달을 수상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마다 "불자로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인터뷰를 통해 불자선수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구본길 선수의 어머니 선태복 불자는 건강이 불편할 때도 매일 새벽 2시에 갓바위에 올라 아들을 위해 108배를 하며 기도를 올릴 정도로 매우 큰 불심을 보이는 신행 생활을 해왔다.

임혁 배우는 포교원 연예인전법단 연예인분과 회장으로 불자 연예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공연과 포교활동을 하며 공덕을 쌓고 있다. 올해에는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리딩 불교성전' 녹음에 직접 참여해 음성포교에 앞장섰다.

김동준 배우는 가수 '제국의 아이들' 출신으로 무대에서 불교 만(卍) 자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부모님과 부산 소재 사찰을 다니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현종 역할로 출연해 현종의 어린 시절 스님 역할을 위해 삭발을 하는 등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했다고 전해진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이민우 기자

비구니부 신설…비구니 역량 확대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서 의결
승려법, 징계법 차기회의 이월

태고종이 총무원 내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비구니 역량 확대에 나선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4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1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56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안된 종회에서는 △종법 개정 △총무원 부장 임명동의 △제6대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종법 개정 안건에는 총무원장이 발의한 총무원법, 승려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이 상정됐으나 총무원법 개정안만 가결됐다. '선득도 후교육' 조항이 폐지를 골자로 한 승려법과 징계 관련 조사를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한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은 수정·보완을 이유로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총무원법 개정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에 '비구니부'가 신설됐다. 신설된 비구니부는 △비구니 지원 및 관리 △비구니 포교업무 △비구니 의제 및 품위관리 △비구니 징계조사 등을 관장하게 된다.

태고종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종단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 비구니회의 결속을 더욱 확충하고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비구니부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육부대중의 세분화된 동력이 종단 발전과 신도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중앙종회는 총무원 홍보부장 서리 탄묵 스님과 신설된 비구니부장 서리 현담 스님의 임명 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제6대 원로의원으로 운설 호명(서울강북)·지상 법경(서울동부) 스님 등 19명을 선출했으며, 불기2567(2023)년 세입세출 결산 수입 지출 49억4973만원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했다. 신중일 기자

금산사 주지후보 화평 스님 선출

덕산 · 일원 스님 사퇴로 막판 단일화 이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후보에 화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금산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0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인 화평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로는 화평 스님을 비롯해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과 현 주지 일원 스님이 출마하며 3자 구도를 형성했지만 28일 일원 스님이, 29일 덕산 스님이 사퇴하면서 막판에 단일화를 이뤘다.

이날 화평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혜민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화평 스님은 "당선의 기쁨보다 전북불교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은사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유지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사부대중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교구의 화합과 발전, 나아가 전북불교와 한국불교의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와 소통하고 대중과 화합하는 승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구 공영제를 시행해 신뢰받는 전북불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화평 스님의 주지 임기는 오는 6월 17일부터 4년간이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7교구 금산사 교무국장 등 교구 내 주요소임을 맡아왔다. 익산 심곡사 주지,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3연임했다. 현재 전주 서고사 주지, 조계종 환경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3천 청년불자 발원…교내 전법 확대

건학위 최고 · 상임위 회의 개최
3년 성과 및 향후 계획들 점검
교내 '불교학생연합' 창립 계획
동불, 단과대 동아리 등 연합체
서울 · 경주 3천 불자 양성 목표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 창립법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아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불자 3000명 양성을 발원했다. 이는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 등 교내 전법을 적극 활성화겠다는 의지로 확인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4월 2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위원장 경우 스님(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상임최고위원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산하기관 및 학교장들이 참석했다.

건학위원회는 회의에서 2021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계획들을 점검·확정했다.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 건학'을 선언하고 3년 동안 이뤄져 온 건학위원회의 활동은 동국대 전반을 변화시켰다. 건학위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이루기 위해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제도를 신설했으며, 처음으로 교내 취업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확정된 건학위원회 올해 추진 역점 사업은 '대학생 전법'에 방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등을 통한 교내 전법 활성화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존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 추진 중인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학원 불교장학생·소모임,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 'WISE대학생전법단'을 출범한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등 연합체로 구성된다.

이 같은 전법조직 출범을 통해 건학위원회는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여 대학생불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내리사랑장학을 통해 건학이념 선순환 장학 사업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 불자 신행활동 모델 확립을 추진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법, 장학, 취업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중심 도량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 양성을 발원한다"면서 "가장 먼저 올해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2000여 동국인의 참여토록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추진하려 한 '영캠프'도 개최하려 한다. 동국대 118년 건학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봇물'

불교 · 사범 · 공과 · 경영대 연이어

3000여 대학생불자 양성을 발원한 동국대에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내 전법조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30일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과 5월 1일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 창립법회를 정각원에서 봉행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에는 현재까지 7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뤄졌다.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는 85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초대 회장은 이현나(국어교육과) 학생이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반야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국어교육과 조성윤·전한성 교수, 역사교육과 윤종필 교수가 위촉됐다.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은 학부·대학원생 112명이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최윤정 학생(경영학과2)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는 무진 스님(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이, 지도교수는 정욱(경영학과)·임성묵(경영학과)·박청규(회계학과)·전승우(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은 174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이승협(산업시스템공학과3) 학생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무설 스님(불교학부)이, 지도교수에는 황승훈(전자전기공학부)·오제민(에너지신소재공학과)·최민재(화공생물공학과)·한민우(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는 20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최지원(불교학부3) 학생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황순일·김경래(이상 불교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5월 1일 불교대학 가람수호 창립법회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43일 동안 1167㎞ 인도순례를 다녀온 뒤 일성은 대학생 전법이었다. 나 역시 이사장으로 서울·WISE캠퍼스에 3000명의 불자 양성을 발원했다. 이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지명 대선사 원적에 범어사 계곡도 목이 멘다"

수행 사표 원성당 지명 스님
금정총림장으로 영결식 엄수
스님 · 신도 전국서 추모 발길
"대선사 유지 이어 정진할 것"


범어사 대중이 원성당 지명 대선사의 영정과 법구를 연화대로 이운하는 모습. 대중스님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

"남산(南山)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北山)에 비가 내린다. 청산(青山)은 검을 걸어두지 않는다네."

수행자의 사표 원성당 지명 대선사가 임종게를 남기고 법랍 63년, 세수 92세로 입적했다.

범어사는 5월 2일 경내 보제루에서 '원성당 지명 대선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은 금정총림장으로 엄수됐으며, 방장 정여 대종사,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전국에서 찾아온 스님과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범어사 신행단체 대표 및 안국선원 신도 등 대중이 운집해 스님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구는 영결식장인 보제루 앞에서 율원, 설법전, 사천왕문, 일주문을 지나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오색 만장이 앞서간 길을 따라 긴 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중의 애도 속에 스님의 법구는 연화대에 안치됐다. 거화의 식이 진행되자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소리쳤고, 스님의 법구는 금정산 깊은 녹음 속으로 운무가 되어 흩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대선사의 원적 소식에 범어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도 못내 아쉬운 듯 목이 멘 듯하다. 대선사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라며 "속히 사바에 오셔서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우리 대중은 여전히 대선사의 발걸음이 필요하고,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많다"며 "바라옵건대 부디 속환사바하시어 큰 가르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일오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 후학들도 게으르지 않고 매사에 수행자의 형형한 눈빛으로 스스로를 깨우칠 것"이라고 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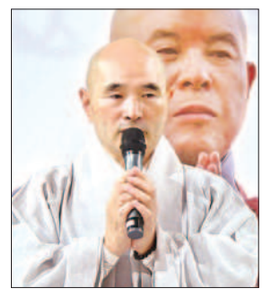
문도를 대표해 수불 스님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정진과 수행으로 사표가 되어주신 은사스님께 존경을 전하며 각지에서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원성당 지명 대선사는 1961년 백운 대강백의 소개로 출가해 나옹 능가 스님의 상좌로 수행정진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염원을 세우고 부산 가야동에 안국사를 창건했다. 2010년부터 경주 토굴에서 보임(保任)하는 등 수년을 유마거사의 미질(微疾)로 두타행을 하다 입적 전날 목욕재계하고 맏상좌인 수불 스님에게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 제3대 이사장에 호산 스님

4월 29일 봉은사 구생원서 임시 이사회 · 총회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3대 이사장에 호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상월결사는 4월 29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4월 19일 제2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이사장 선출이 논의됐으며,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호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월결사 활동의 핵심은 초대 이사장이셨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전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소임을 맡은 이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상월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월결사는 이사들 뿐만 아니라 전 종도들이 함께 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을 비롯해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현덕 스님(통도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담화 스님(조계사 주지), 삼조 스님(전 불교신문사 사장), 지현 스님(청량사 회주), 해량 스님(상원사 주지), 도림 스님(장안사 주지), 정충래 전 동국대 이사, 최진식 심팩 대표이사,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圓成堂 志明 大禪師 영결 다비식에 대한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은사 스님이신 원성당 지명 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을
불기 2568년 5월 2일(음력 3월 24일) 부산 범어사에서 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 스님들과 제방 스님들, 은사 스님의 영전에 조화를 보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은 은사 스님의 큰 가르침과 유지를 가슴 깊이 새기어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68(2024)년 5월 2일(음력 3월 24일)

문도대표 **수불** 합장

“禪명상, 사회적 마음챙김 대중성 담아야”

오용석 교수, 종학연구소 학술대회
‘선명상의 의미와 적용’ 주제 발제
내면몰두보단 현대사회 요구 살펴
이타 실천 담긴 대승정신 담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선명상은 우리의 내면만을 통찰하거나 자신만의 안심에만 머물지 않고 소외된 존재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살필 수 있는 매개가 돼야 한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5월 2일 서울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선명상은 한국불교의 신행·수행에 나타난 통합적 성격을 반영할 뿐 아니라 선불교의 대승불교적 사상과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명상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행, 보살행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K-명상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용석 연구교수는 ‘선명상의 의미와 적용’을 주제로 한 이날 발제에서 사회적 마음챙김과 보살행 그리고 이타적 실천을 아우르는 대승정신이 담긴 선사상을 강조하고 선명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 교수는 “한국불교의 신행·수행은 통합적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통을 포괄하고 있기에 선명상이라고 해도 전통적인 간화선만이 아니라 여타의 수행 전통과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대중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마음챙김을 지향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개인주의로 환원시키거나 내면적 통찰에만 몰두하며 ‘사회’라는 범주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명상과 K-명상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한국불교 전통의 신행·수행문화의 복합성, 관계치유의 조화, 사회적 마음챙김을 통한 상업주의의 극복, 공동체성의 회복 등 불교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명상이 공존하는 시대, 새로운 정신문화가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한국 전통 선불교와 현대 명상 전통의 융합·통합적 진행 △사상적 근거로서 선어록이나 선사상 반영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 오 연구교수는 “시대 기류에 따른 인스턴트화된 명상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불교가 갖고 있는 정신문화의 보편적 관점에서 교정해 나간다면 그때의 선명상은 순도와 밀도가 담보된 명상문화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교수는 “‘K-명상’이 아닌 ‘K-불교명상’을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K-명상이라는 용어는 현재 불교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임의적 개념을 정의해 사용하고 있기에 결국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교명상의 보편적 가치 아래 존재하는 한국불교는 K-명상이라는 특수성 속에 불교라는 이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진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국외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자헌 스님, 동국대 교법사) △명상앱 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은산 스님, 동국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 △고려대장경의 선관(禪觀) 경전 고찰(이진영, 동국대 역경원) 등이 발제됐다.

청년음악가 120명이 펼친 ‘불교 음악’ 향연

4월 28일, 조계종·봉은사 주최
불교음악원·상월결사 주관으로
예불음악·찬불가·무용 등 선보여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 발원



청년음악가들이 봉은사서 열린 ‘찬불음악축제불교’에서 한국 전통 예술과 현대 대중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청년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한국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며 청년 전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처럼 봉은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과 외국관광객, 대학생들은 청년들의 신나는 공연을 함께 즐기며 불교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주최하고, 불교음악원과 상월결사가 주관한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대학생찬불음악축제’가 4월 28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개최됐다. 음악회에는 단국대·동국대·서울대·용인대·이화여자대·중앙대·추계예술대·한국예술종합학교·한양대 등 수도권 9개 대학, 120명의 대학생이 출연해 풍물놀이와 예불음악, 무용, 국악관현악, 찬불가 무대를 선보였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대학생찬불음악축제’가 불교음악의 가치 확산과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청년세대에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며 “나아가 전국 대학의 음악 전공자들에게 불교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을 경험시켜 그 가치를 끌어올리고, 앞으로 이들이 불교 예술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자 발굴과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중앙대 중앙타악연희단의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로 시작됐다. 이어 한예종 전통예술원 성악·무역 전공자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불교의식 ‘칠정례’를 노래했고, 불교의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비무와 승무를 함께 선보였다. 박혜인 한양대 학생의 ‘리플렉션(Reflection)’ 생황 연주와 이빛나 봉은사 우담바라 합창단 지휘자와 강승완·이정인·홍하나 중앙대 성악과 학생들의 ‘백년을 살지라도’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성악 공연도 펼쳐졌다.

전소현 서울대 학생은 수륙재, 영산재, 생전예수재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태평소로 ‘호적풍류’를, 최민동국대 박사과정 학생이 퉁소협주곡 ‘풍전산곡’을 연주했고, 동국대 학생들이 ‘경기 뱃노래와 남도 뱃노래’로 흥겨운 우리가락을 들려줬다.

상월선원청년합창단의 ‘시즌 오브 러버(Season of lover)’ ‘한걸음 더’ 음성공양과 세계 3위 비트박서 스테이의 현란한 비트박스,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쿠루의 화려한 비보잉 퍼포먼스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국악 아이돌 소리꾼 김준수(국립창극단)의 ‘어사출두’와 ‘더질더질’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전 출연자가 찬불가 ‘부처님 법 전해요’를 노래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김내영 기자

동대부여중·고, 2025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동국대 이사회서 만장일치 승인
학령인구 급속 감소 따른 조치

동대부여중과 동대부여고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특정 성별만 받는 학교의 경우 향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4월 30일 서울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55회 이사회를 열어 ‘동대부여중·고 남녀공학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사진〉 이사회에는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중·여고 신입생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 보고 받은 바 있다. 한 학기에 한 반씩 줄여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 법인 등 관련 주체가 1년간 활발하게 논의했고, 남녀공학 전환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대부여중·고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 감소 예측,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 경쟁력 약화 초래 △남녀 성비 불균형 심화 △학교 인근 거주 남·여학생 원거리 통학으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교직원 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에도 동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회 의결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에 따라 이들 학교는 5월 말까지 남녀공학 전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쓰담순례’ 성료

4월 27~28일, 화엄사 일대서
직능·교구 회원 함께 걷고 소통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4월 27~28일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화엄사 어머니의 길 쓰담순례’를 진행했다.〈사진〉 ‘수행, 전법, 환경, 봉사’의 메시지를 담은 회원 순례프로그램으로, 직능·교구 회원들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국여성불자회 지도법사이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여성이자 어머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여성불자들에 의해 한국불교 1700년이 이어져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 백년, 천년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재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화엄사 창건조로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조사의 이야기가 담긴 사사자삼층석탑 참배와 화엄사에서 연기암까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전설이 담긴 ‘어머니의 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리산호수공원캠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별빛명상 야단법석’ 프로그램도 열었다. 둘째 날, 새벽 4시에는 새벽예불과 금강경 독송 기도로 각자의 서원을 되돌아본 후, 사성암과 천은사 순례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내영 기자

“기차 타고 떠나요 템플스테이로”

6월 8일, 8개 사찰 ‘테마 여행’
팔도장터·관광지도 연계 구성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기차와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문화사업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6월 8일 반야사(충북 영동), 영국사(충북 영동), 용화사(충북 청주), 갑사(충남 공주), 신안사(충남 금산), 마곡사(충남 공주), 도리사(경북 구미), 직지사(경북 김천) 등 총 8곳 템플스테이 사찰로 떠나는 테마 열차를 운영한다.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기존에는 운행하는 열차의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처음 열차 전체(6량)를 템플스테이 주제로 운행한다.

이번 상품은 8개 사찰 템플스테이 체험과 팔도장터·관광지 방문으로 구성된다. 반야사는 월류봉과 영동와인터널, 영국사는 옥계폭포와 레인보우힐링센터,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용화사는 초정행궁과 문화제조창, 전국 5대 재래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을 연계했으며, 갑사는 용문폭포와 공주산성시장, 신안사는 깻잎 유기농 쿠키체험과 금산 국제인삼시장을 둘러본다. 직지사는 김천치유의숲 코스가 포함돼 숲길 맨발걷기와 숲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다.

경비에는 서울역에서 탑승 후 왕복열차와 관광지간 연계 차량(버스), 템플스테이 참가비 등이 기본 포함돼 있다. 여행 코스에 따라 지역 맛집에서의 식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이 증정된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원하는 사찰을 선택할 수 있고, 중간중간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어 짧은 여행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참조. 1544-7755

김내영 기자

대불련·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MOU

대학생·청년 전법 활성화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대불련)와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연수원장 선일 스님)이 4월 29일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회원의 심신 안정과 대학생 청년 포교·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및 회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청년의 문화체험 및 정서함양 교육(사찰탐방, 명상프로그램, 캠프, 수련회 등) △기타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사항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주현우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대학생이 낙산사에서 위안을 받고 힐링하고 신심 깊은 불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율동대회 참가자 모집

5월 26일까지, 영상 제출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맞아 개최하는 ‘청소년 바라밀다 율동대회’ 참가자를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초·중·고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파라미타 노래 1, 2 또는 연등회 노래 15집 노래 중 1개를 선택해 율동을 창작한 영상과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aramita00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인 봉축위원장상에는 장학금 30만원이, 금상인 동국대 총장상에는 장학금 20만원이, 은상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상에는 장학금 10만원이, 동상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상에는 장학금 10만원이 수여된다.

김내영 기자



대상을 수상한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 모습.

불레협, 연꽃노래잔치 성료

4월 28일, 총 9팀 참가
대상엔 봉은사 합창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 스님)는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2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노래잔치에는 수국사, 문원초, 정덕초, 경국사, 전국비구니회 법룡사, 진관사 가릉빈가 합창단,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 등에서 어린이·청소년 70여 명이 참여했다. 대상인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장 조계종총무원장상은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에게 돌아갔다.

김내영 기자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하며 국외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다. 4월 27일 안산에서 선적식을 개최하고 국제구호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제구호사업 본격화…의료물품 지원 나선다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③

글로벌 의료물품 지원 나선 30돌 생명나눔

안산=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키로 한 것.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첫 국가를 캄보디아로 선정, 국제구호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4월 27일 안산에 위치한 (사)글로벌생명나눔 제1물류창고에서 '캄보디아 7차 지원물품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된 의료물품은 20억원 상당으로, 캄보디아 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의료물품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는 호흡기 질환과 혈액 내분비, 신생아 장애 등에 의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본 의료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생명나눔과 협업, 캄보디아에 물품을 전달키로 했다. 앞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 10월 1일 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한 바 있다. 협의안에 따라 의료물품은 글로벌생명나눔에서 후원하고,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배송비를 책임진다.



일면 스님은 선적된 의료물품의 포장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운반을 염원했다.



일면 스님은 선적식에 앞서 물류창고를 둘러보며 해외에 지원할 다양한 물품을 살폈다.

2018년 설립된 글로벌생명나눔은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국제구호NGO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전달해 해당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평균수명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 학용품 등의 교육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미래 역량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4월, 1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시작, 이번까지 총 99억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상태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2018년부터 16개국에 36차례에 걸쳐 전달한 의료물품이 443억원에 달한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한 캄보디아 지원을 계기로 6월경 캄보디아 정부와 5년간 2500만불의 지원에 대한 MOU를 맺을 예정이며 추후 깜뽕스프, 씨엠립, 다케오 등 3개 주정부와도 업무협약을 논의키로 했다.

글로벌생명나눔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의료물품 지원이 열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적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어떤 재난이 국가에 닥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부처님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적식에 동참한 정현숙 후원회장도 "오늘 큰 규모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다"면서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도 "이번에 보내는 의료물품이 캄보디아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모든 생명 존중받는 세상 만드는 데 일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법인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특히 의료물품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경제 불황과 기후위기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의료 취약국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의료물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취약국의 경우 외환보유고에 따라 필수 의료물품을 구할 수 없어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면 스님은 "국가부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 인류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의료물품 지원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불교 모여 '佛都 부산' 환히 밝히다

부산연등회봉행위 · 삼광사
구별 연합회 각지 점등식
봉축행사 원만회향 기원해
부산연등회 SNS 공모전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도 부산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밝은 빛을 밝히는 점등식이 잇달아 봉행됐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는 4월 26일 송상현광장에서 '2568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법석을 증명하는 혜총 대종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 마나 스님 등 부산구·군 불교연합회장 및 회원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준승 부산시행정부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아울러 김수현 부산불교여성개발원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등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부산연등회 점등식은 전통놀이인 호기놀이를 재현하고 등을 매단 장대 '등간(燈竿)'을 선보여 연등회의 전통문화 가치를 알린 점이 눈에 띄었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천진불들은 노래와 춤을 무대에서 선보인 후 호기놀이가 적힌 깃발을 앞세우고 행사장을 행렬했다. 내빈들은 마련된 봉투를 희사하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의 발전과 전통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송상현광장에는 범어사 7층석탑 등과 대형장엄등이 일제히 화려하게 불을 밝혔다. 신나는 풍물패가 행렬 선두에서 봉축의 기쁨을 더했고, 지난해 연등제등행렬 우승팀인 여래선원이 간이 연등행렬을 선보여 봉축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회장 정오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부산연등회는 부산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봉축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라며 "오늘 우리가 밝힌 등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두루 세상을 포용하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2568부산연등회는 5월 12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은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봉행된다. 특히 관람객 SNS 공모전도 진행한다. 행사기간 부산연등회 관람 후 관련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고 해당 링크를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010-5920-0501)로 전송하면 응모된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는 4월 27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봉행하고 점등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가 송상현광장에서 범어사7층석탑등에 불을 밝히고 있다.


천태종 삼광사 경내에서 봉행된 점등대법회. 내빈들이 연등을 밝히고 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점등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유와 평등, 평화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겨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점등사에서 "자신 안에 있는 미혹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과 상생의 불빛으로 회향되기를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법회 후 내빈들은 지관전 입구에 마련된 점등대로 자리를 옮겼다. 경내 마당에는 신도를 비롯한 부산시민, 외국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점등하자 삼광사 경내와 일대에 설치된 10만등과 대형등이 불을 밝혔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4월 30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연합회장 지원 스님, 부회장 능후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과 김정규 남부경찰서장, 박화자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남부경찰서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남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봉축을 맞아 부처님 가피로 남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기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항상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스님들 덕분에 남구가 한층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가는 것 같다. 스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영제 스님)는 4월 28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총 대종사, 회장 영제 스님, 가야사 회주 정현 스님, 정목 정사(정정심인당) 등 회원스님들과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김영욱 부산진구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물질, 좋은 몸을 사용하고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닦으라고 당부하셨다"며 "오늘 밝힌 등은 행복을 의미하고, 이 행복이 부산진구 주민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불교발전과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윤환 영광도서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도림 스님)는 4월 28일 장안사 경내에서 봉축점등식 및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도림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기장군사암연합회는 10~12대 회장 역임한 정오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장안사 주지 도림 스님을 신임회장으로, 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을 부회장,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을 총무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도림 스님은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림 스님은 "기장군과 기장불교발전을 위해 지난 13년간 애써주신 정오 스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다"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항상 소통하며 불교홍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 홍법사로 놀러오세요"

5월 10일, 반려견 템플스테이
당일형 · 숙박형으로 나눠 진행

조계종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반려견과 반려인을 템플스테이로 초대한다.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반려인에게 힐링과 쉼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현대 많은 이들이 반려견과 생활을 하고 가족처럼 정서를 나누지만 정작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지금 1000만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홍법사에서 마련한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는 현대 시대와 요구에 발맞춘 현대적 포교방법이며 수용해서 함께 하고자 고심해 마련한 기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이 생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아름다운 환경을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홍법사가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로 개최한다. AI 이미지 제작 사진(비바인사이트).

홍법사는 이번 반려견 템플스테이를 위해 비바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펫 브랜드 '멍콕'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동반 템플스테이로 오는 5월 10일 서포터즈 활동으로 시작을 알린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사찰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껏 냄새를 맡고 자연을 즐기는 반려견 친화적 활동으로 사찰에서 숙박 및 식사, 체험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부산 홍법사는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넓은 잔디 마당이 있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반려인이 머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곳이다.

'멍콕 템플스테이'는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 1견을 기본으로 하며 당일형은 현장에서 반려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숙박은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는 5월 중순부터 사이트 멍콕 (www.mungkok.com)에서 예약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일형은 토요일, 숙박형은 화, 목, 금, 일요일 주 4일간 예약가능하다.

한승민 비바인사이트 대표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조원 가량으로 성장했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반려인구의 니즈를 충족하고 특화콘텐츠로 자리잡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도구불교연합회 봉축맞이 자비나눔

이웃돕기 성금 · 장학금 지원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 스님)가 봉축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4월 28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과 장학기금 300만원을 영도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연합회장 호법 스님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영선사 정오 스님, 김희윤 영도구불교신도연합회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회장 호법 스님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영도구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 전체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요즘 사찰도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정성스럽게 나눔을 해주시니 감사하다. 소외되는 곳 없이 잘 전달해 스님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기금은 동삼사회복지관에 100만원, 영도구노인복지관에 100만원, 행복연구장학회에 300만원이 전달되며, 이웃돕기로 1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어버이날, 어르신 행복 기원"

부산정각원, 어르신 한마당 잔치

나눔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 산하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하 부산정각원)이 5월 1일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어르신 초청 주민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부산정각원 봉사자와 9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어울림마당은 나눔봉사단 실버레크리에이션이 진행하는 무대로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부산정각원 봉사자들은 '자비와 광명'이라는 문구를 카네이션에 적어 어르신에게 선물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아울러 국수 900인분을 마련해 공양 올리고 양말도 전달했다.


지역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잔치를 열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부산정각원 스님과 봉사자들.

향공 스님은 "그동안 저희 견강암 부산정각원 불자들은 어르신 덕분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고 공덕을 쌓을 수 있었다"며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다가올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고 효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소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함박웃음을 짓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나눔실천자비도량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다. 주지 향공 스님의 나눔 원력으로 발족했으며 부산 국제시장 난민촌의 소외 이웃을 위한 국수만발공양으로 시작했다. 봉사를 이어온 향공 스님과 신도들이 발심해 지난 2022년 11월 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매월 2·4째 주 무료급식과 효나눔잔치, 도시락 배달, 소외이웃 물품전달, 장학금 지원, 동지팥죽 나눔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시민 위한 무료 힐링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대학 8월까지 진행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부산시민을 위한 힐링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며 부산시민의 정신 안정을 위한 무료강좌다.

힐링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도일 스님(전 송광사 율원장)과 하림 스님(미타선원 선원장), 행복선명상센터 관계자 등이다.

도일 스님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30일과 7월 25일, 8월 29일 총 4번에 걸쳐 시민을 위한 불교와 붓다의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한다. 행복선명상 프로그램은 5월 9일, 16일, 23일과 6월 13일, 20일, 27일 그리고 7월 4일, 11일, 18일이며 마지막으로 8월 22일 등 총 10회 동안 진행된다. 하림 스님은 현재 미타선원에서 행복선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사성제와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진행하는 명상을 안내하고 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서면에 위치한 부산을 대표하는 불교대학이며 역사 깊은 교육도량"이라며 "이번 강좌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힐링강좌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살기좋은 부산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부도 성인되는 가르침, 대장경에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

성낙두 경남지사장

4월 27일, 경내 대적광전서
대장경 조성 정신·가치 알려
지구촌 안녕·평화 발원키도


정대요잡 행렬이 해인도를 따라 돌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4월 27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선현들의 고려대장경 조성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며 팔만대장경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고 모든 재난극복과 국민화합,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64회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명고와 명종5타에 이어 해인사 청다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됐다. 1부 기념법회는 해인사 108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 헌향, 헌다, 헌향, 고유문 낭독, 봉찬법요, 법문, 평화메시지, 축사, 발원문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합창단 음성공양, 법보전 합장순례 및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공덕주 헌다례, 소전 및 회향이 이어졌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의 헌다, 내외빈 스님들과 기관장들의 헌화가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에 새겨긴 부처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했던 뜻을 기림으로써 이 시대의 모든 재난을 극복해 국민이 화합하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달아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과 빈곤이 사라지고 전쟁과 파괴가 멈추어 이 세상이 연꽃처럼 향기롭고 뭇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제불보살에게 고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고려팔만대장경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정표의 기록이며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선지식의 말씀과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산벚나무로 만든 대장경판 속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는 길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범부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팔만대장경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이기적 다툼의 극대화가 아닌 자비공동체를 지향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은 선명상법의 지남”이라며 “우리 다함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명상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해인사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대적광전 마당에서 호국금광명경 합송하며 ‘탑마당-독성각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을 이르는 법보전 합장순례, 공덕주 위패이운, 정대요잡에 동참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13명의 공덕주께 올리는 헌다례와 소전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호국대성사 서산 대사 유훈 기리다

대흥사,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춘계제향

4월 27일, 경내 표충사서
추계제향에 호국대전 준공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27일 경내 표충사(表忠祠)에서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대흥사 표충사 춘계제향’을 봉행했다.〈사진〉

매년 봄·가을에 열리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재는 유교식 제례와 법요식으로 진행한다.

대흥사 조실 보선 대종사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서산 스님에게 예를 올리고,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꿈에서 깨어나 장부의 일을 모두 마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해탈’의 환희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며,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오늘 서산대사와 수많은 의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며 “숭고했던 선사의 가르침은 우리의 오늘을 충실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흥사는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상징물이 될 호국대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계제향에 맞춰 호국대전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미륵강탄재·십선계 수계법회

성보박물관 상량식도 봉행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5월 1일 경내 미륵전 앞마당에서 제1258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차기 주지후보 화평 스님,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포교국장 응묵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금산사는 진표 율사가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거대한 미륵불을 만든 후 혜공왕 2년(766)에 연못을 참숯으로 메우고 미륵전을 건립한 5월 1일을 미륵강탄일로 정하고 매년 미륵강탄재를 봉행해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미륵강탄재에 동참한 불자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보시와 계행, 자비심으로 수행 정진해 미륵부처님이 상주하는 도솔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륵강탄재 후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전계아사리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유나 일원 스님, 제환 스님의 인례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회에 동참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공사 중인 금산사 성보박물관부지로 이동해 상량식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계사, 만공 선사 유품 수덕사에 기증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가 4월 25일 기증식을 열고 선지식 만공 선사의 유품을 포함해 총 9점의 불교유물을 덕숭총림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관장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에 기증했다.〈사진〉

이날 기증된 유물은 △불구석여심족자 1점 △〈참선배워정진하는법〉 △〈경허성우화상설법〉 △성어선니 봉피 외 △청운당 편액 △만공 스님 가사고리 △선복 스님 수저 한 벌 △〈곤몽객만공당설법〉 외 △성오 스님 수계증 총 9점이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 가운데 성오 스님(性悟, 1909~?)이 기록한 〈만공선사 행장일기〉 등이 포함돼 있어 만공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태화강, 연등으로 장엄하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개막식이 열렸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26일 태화강 국가정원 연등축제 공연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울산시를 밝힌 연등이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큰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순천불교연합회 ‘순천 연등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옛 조상들의 ‘낙화놀이’가 재현돼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불교연합회(회장 범일 스님)는 5월 28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순천지역 사암에서 마련한 ‘순천연등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삼귀의, 연등공양, 축가, 봉행사, 봉축메시지, 시상식, 축사, 발원문, 점등·점화, 연등행진, 낙화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전불교합창단연, 제13회 대전불교합창제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정림)가 4월 25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3회 대전불교합창제를 열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사진〉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인 이번 합창제에서는 △용화사 소리사랑합창단 △보현불교대학 보현불교합창단 △태전사 무수합창단 △BTN불교TV중창단 △연화사 연화사합창단 △대승불교 양우종 니르바나합창단 △진각종 심인합창단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가 참가해 법음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경남 고성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법회

경남 고성불교사암연합회가 4월 27일 고성 송학동 고분군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철탑 빛 조형물로 철기가 유명했던 소가야의 땅 고성의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했다.

고성불교사암연회장 수운 스님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더욱 빛난다”며 “봉축탑에 불을 밝히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에게는 치유의 등이 되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등이 되고, 평화의 등이 되고, 지혜 광명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새롭게 조성된 봉축탑에서 탑돌이를 하며 고성군의 번영과 고성불교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재즈 선율로 물들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7일 경내 극락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2024 천은사 Jazz in lthe Spring-BLUE GIANT’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매년 독특한 음악회를 선보이는 천은사는 이날 색소폰 연주자 신명섭과 피아노 오은혜, 콘트라베이스 전창민, 드럼 이성구, 보컬 백효은 씨가 참여해 영화 ‘블루 자이언트’의 재즈 영화음악을 연주했다.

대진 스님은 “두 해 전부터 재즈의 향기가 천은사에 더해졌다. 삶에 지친 이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온 김인곤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즈음악회에 참가하게 됐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동불교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충북 영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림 스님, 이하 사암연합)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7일 충북 영동천 고수부지에서 ‘화합과 상생의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종림 스님(영동생활실천불교대학장, 황룡사 주지), 명원 스님(사암연합 총무, 반야사 주지), 혜각 스님(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실상사 주지), 혜정 스님(성원사 주지), 도원 스님(향엄사 주지), 문성 스님(덕천사 주지), 중원불교신도연합 김민수 회장,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림 스님은 “오늘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은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한 충북 영동의 불교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의미의 점등식”이라며 강한 화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안군주지협의회, 봉축점등법회

태안군주지협의회(회장 흥법 스님, 태을암 주지)가 4월 30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법회를 태안읍 중앙로 광장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된 봉축탑은 5월 11일까지 태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교구장 도신 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 서산주지연합회장 혜산 스님, 홍성주지연합회장 경보 스님, 당진주지연합회장 상준 스님,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 가세로 태안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안군주지협의회 흥법 스님은 “점등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둠 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거두어 내고 마음에 부처님을 잘 맞이하는 불을 밝혀 일체마장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불청 전북지구 자비의 김치나눔

대불청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가 4월 27일 정읍 대원김치공장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완주 송광사 총무 상견 스님, 임실 덕수암 범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40여 명의 청년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무김치, 열무 물김치 1000kg을 담아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청년회원들이 담근 김치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급식식당과 보리수마을 어르신 일자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주시 효자3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김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마음과 지혜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고 치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리랑카 불교, "테라와다 불교 보호" 요구

"종교 교육 감소는 범죄 급증과 연관" 강조

불교성지 지정 촉구 제안서 제출
정부 "불교 질서 확보 노력" 약속
힌두 강세 타밀 지역 반발 일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의 한 대형 불교단체가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 건설지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제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스리랑카의 '타밀 가디언'은 스리랑카 불교단체의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스리랑카가 전국에 지부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형 불교단체 '전(全)실론 샤사나락샤카 발라 만달라야(Shasana rakshaka Bala Mandalaya)'의 스님들은 지난주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수석비서인 사만에카나야케에게 "종교에 대한 교육 감소와 사회범죄의 급증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동시에 정부에 "불교사원 건설지를 확보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일련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를 받은 에카나야케 수석비서는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헌법에 따라 불교를 옹호하고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고고학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11개 사찰을 스리랑카 국가가 인정한 불교성지로 지정했다"면서 "스리랑카 내에서 불교적 질서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제안서가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마싱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불교계에서 정부에 불교 보호와 사찰 토지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조치사항 중에 불교가 아닌 힌두교나 타 종교의 유적이나 사원이 포함되어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성지로 지정된 11개의 사찰 중에 4개소는 힌두교가 강세인 타밀어권 지역에 있으며, 이미 오랫동안 힌두교인들과 함께 운영되던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힌두교 사원에 속한 부지에 불법적으로 건설된 불교 사원과 불상이 비밀리에 개원식을 마치고 사찰로 지정되면서 힌두교도가 다수인 타밀족 사람들이 동일 부지인 힌두사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일고 있다.


대통령에게 불교계의 건의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출처=타밀 가디언

이번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의 응답에 대해 타밀족은 물론 불교계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밀 가디언은 "2009년 물리바이칼 무력충돌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특히 '고고학'을 빙자하여 전통적인 타밀 지역을 불교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비불교 유적지가 불교도들에 의해 점유되었으며, 이로인해 타밀족을 비롯한 비불교도들은 이러한 종교 및 문화 유적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난당한 日 불상, 옥션 낙찰자가 사찰로 반환

8월 도난 후 1월 옥션 올라
낙찰자 "환지본처에 큰만족"

일본 사찰 도난 불상을 인터넷 경매에서 사들인 한 낙찰자가 불상을 본래 사찰로 반환해 화제다. 4월 1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은 무사히 환지본처한 목조 아미타여래상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나라현 가츠라기시에 소재한 사찰인 다이마데라(當麻寺)의 산내암자인 넨부츠인(念仏院)에서는 지난해 8~9월 경 본당에 봉안돼 있던 아미타여래좌상과 다문천왕상 2구가 도난당했다. 이중 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경에 조성된 수작으로 높이 38cm, 통견의 형식의 대의를 수하고 상품상생인(上生印)을 하고 있다.

넨부츠인의 주지인 카와나카 쿄쇼 스님은 "문화재가 많은 사찰이다 보니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과 인식을 가지고 보호에 노력해 왔으나 이렇게 도난당할 줄은 몰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과 스님에 따르면 도난 사실을 안 직후 본당 창문의 걸쇠가 파손된 것을 발견, 불상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도난 당한 불상을 넨부츠인 주지스님에게 전달하는 낙찰자.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경찰은 가츠라기시 역사박물관이 제공한 불상의 세부사진 등을 자료로 도난당한 불상 중 아미타불상이 지난 1월 인터넷 옥션에 출품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출품자를 찾았다. 출품자는 "해당 불상이 도난품인지 알지 못했으며 한 남성이 매각해 달라며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불상을 가져온 80대 남성을 체포, 넨부츠인에서 불상을 훔쳤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남성은 "산속 깊이 있는 절들에서 불상을 훔쳐서 돈을 벌었다"고 말해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도난당한 다문천왕상의 행방을 찾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불상을 낙찰받은 호키에이타씨에게 불상이 도난품임을 알리고 관련사정을 청취했다. 취미로 불상을 수집하는 호키씨는 경찰 측의 설명을 듣고서 조건 없이 불상을 넨부츠인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다이마데라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직접 카와나카 스님에게 불상을 전달한 호키씨는 "지금껏 수집한 불상 중에 손에 꼽히는 수작이라 떠나보내기가 조금 아쉽지만, 원래의 절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카와나카 스님은 호키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도난방지와 문화재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상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던 카츠라기시 역사박물관 측도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다른 문화재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에 매료된 영국 성소수자들

불교 교리 속 참 나를 찾기 매료
비폭력·평등으로 박해 상처 치유


무니샤 유럽불교연합 부총재가 아내와 결혼서약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BBC

지난 4월 21일 영국 주요 언론 'BBC'는 영국 내 성소수자들의 종교 현황과 그들을 불교로 이끈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2021년 영국 통계청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16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인의 종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 성소수자(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퀴어 등) 130만 명 가운데 '불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무교(5.6%), 유대교(4.5%), 힌두교 (1.8%)가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 답변을 받은 최초의 조사다.

무니샤 유럽불교연합 부총재는 "대다수의 종교는 창조자, 심판자의 역할을 가진 절대자가 정립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에 기반한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만 불교는 절대자 개념이 없으며 덕행의 완성과 깨달음에 성취를 둔 불교 윤리관을 전파한다"면서 "특정 종교에서 죄악으로 멸시되던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불교 윤리의 핵심인 비폭력과 평등사상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불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불교에 귀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동성결혼을 한 무니샤 부총재는 1990년대 초 불교로 개종했다. 그는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최악의 이성 교제가 있는가 하면 매우 사랑스럽고 유익한 이성교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실크로드 마지막 거점서 불교 유적 발견

파키스탄서 중국 불교 전래 시사
측천무후가 세운 대운사 추정


모어 사원에서 출토된 석고 불두. 간다라 양식과 중국 양식이 결합됐다. 사진출처=중국일보

4월 18일 중국 일간 영자신문 '중국일보'는 카슈가르 모어 사원 유적 발굴 소식을 전했다. 카슈가르는 중국에서 서남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자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모어 사원 유적지에는 두 개의 탑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을 위구르어로 '취미'를 뜻하는 '모어'(mo'er)라고 부르며 고대 주거지로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4차례에 걸친 발굴 과정에서 매몰된 벽과 정교한 불상, 도자기와 나무 조각, 돌, 청동과 뼈 유물, 비단과 삼베로 만든 직물 잔해, 조각상 파편 등 1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큰법당이 측천무후가 설립한 대운사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샤오 교수는 "건축 및 불상 양식과 출토 유물은 기원전 1세기경 신장에 불교가 전파된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기록을 종합해 봤을 때 늦어도 2세기 초에 간다라 지역(現 파키스탄)에서 카슈가르로 카슈가르에서 중국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로 발전, 점차 중국 불교가 됐다"면서 "그 결과 3세기에 시작된 모어 사원은 중국의 초기 불교 사원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상생과 치유 가치로 바라본 발우공양은

진관사, 제5회 사찰음식 학술세미나 개최

사찰음식의 의과학적 가치 함께
발우공양 인문사회적 의미 조명
"건강한 질서 담긴 음식 문화"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계호 스님은 발우공양과 통섭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랑과 사회, 자연에 대한 연대감을 강조했다.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 사찰식문화를 의학적·과학적·인문학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5월 2일 경내 한문화체험관에서 제5회 진관사 사찰음식 학술세미나 '사찰음식, 상생과 치유의 식문화'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의 기조발표 '사찰음식, 통섭의 그릇에 담다'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만성 질환과 암 예방 측면에서 고찰(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사찰음식의 화학적 유해물질 저감효능: 연잎 성분의 발암물질 생성 및 돌연변이원성 억제 효과(신한승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상생과 치유의 관점에서 본 발우공양 분석 '의식에 담긴 뜻'과 '동참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진관사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가 발표됐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발우공양에 담긴 통섭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발우공양 참여를 통한 사람과 사회, 자연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 형성과 같은 상생과 치유의 과정은 의미가 깊다"며 "발우공양의 정신과 가치가 유지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밥 먹는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는 사찰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불교 정신인 참선과 마음 다스림이 풍부해 만성질환과 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차후 사찰음식을 접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질환과 병원 방문 등을 조사하고 사찰음식을 접하지 않는 2000명과 매칭, 유의성을 분석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발우공양 참가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발우공양을 '침묵과 집중' '비움과 상생' '감사와 발원' 측면에서 조명했다. 구 소장은 "발우공양 참가자들은 말이 끊어진 엄격한 대중공양에서 수행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침묵 속 유일하게 울리는 게송 소리는 참가자들에게 성스러움과 깊은 신심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비움과 상생의 힘을 지닌 공양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뭇 중생과 함께하는 밥으로 인식하고 생반과 청수를 통해 모든 배고픈 중생에게 음식을 베푼다. 음식을 남김없이 비움으로써 자연과도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발우공양을 질서 있는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로 평한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진관사의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은 환경·사회·문화·윤리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진관사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로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율스님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

내성천 제비숙영지 6년 기록
보호구역 지정 서명운동 전개도


지율 스님은 내성천 제비숙영지를 지키기 위해 6년간 카메라를 들었다.

지율 스님이 6년간 내성천 제비숙영지를 기록한 다큐영화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 공동체 상영을 진행한다.

영화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내성천 유역을 찾아오는 제비와 제비숙영지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40여 분짜리 단편으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체코의 이흘라바영화제에 공식초청되기도 했다.

지율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부터 제비를 기후위기환경지표종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전국 단위의 제비서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제비 개체수가 18년 전에 비해 100분의 1로 준 상태다.

10만 마리의 제비가 잠자는 숲은 현재 영주댐 건설로 훼손 위기에 처하자 지율 스님은 내성천에서 살고 있는 생명붙이의 목록을 지워가는 은밀한 작업과 환경문제의 구조적 실상을 알리고 내성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중고 캠을 들고 강에 나갔다. 매달 내성천의 변화를 기록하고 '내성천의 친구들'과 생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지율 스님은 15년 동안 영주댐 중지가처분 소송에 앞장섰으며, 철거 소송의 선정당사자로 내성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정에 섰다.

'공동체 상영'은 영화를 함께 볼 공동체 108곳을 모집하고 제비숙영지 보호에 함께 하도록 제안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스님은 영화 상영 후 결과를 담아 정부 각 부처에 보호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 상영은 15명~20명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의 상영도 가능하다. 전주국제영화제 종료 후인 5월 10일 이후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은 이메일(chorokgm@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예고편은 유튜브(youtu.be/NIdNf9k_SHw)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복 입은 사리불, 부처님께 법을 청하다

국립중앙박물관, 10월 13일까지
'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 展
높이 9.2m·76㎏…140명 등장
'청문자' 사리불 도상 첫 사례 '눈길'


진천 영수사 괘불, 명옥 등 4인, 조선 1653년, 삼베에 색, 전체 크기 919×570.5cm, 진천 영수사 소장, 보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5월 1일~10월 13일 관내 서화관 불교회화실(상설전시관 2층)에서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괘불전-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을 진행한다.

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진천 영수사(靈水寺) 소장 보물인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이하 영수사괘불)'을 소개하는 자리다.

1653년(효종 4)에 제작된 '영수사 괘불'은 현전하는 괘불 117점 중 조성 시기가 이른 괘불로 가치가 높다. 괘불 화면 아래쪽에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이는 18세기 이후 정형화된 괘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로 이른 시기 괘불의 양상을 보여준다.

'영수사 괘불'은 전체 높이 919㎝, 너비 570.5㎝, 무게 76㎏에 달하는 규모다. 현전하는 괘불 중 가장 많은 인물인 140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대 인도 왕사성 영산에서 열린 석가모니 불의 설법 모임에 참여한 청중들이다. 이 영산회상(靈山會上) 모임은 괘불을 비롯한 불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이다. 특히 수많은 인물 가운데 화면 중앙 높은 연화대좌 위에 앉은 석가모니불과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르침을 청하는 사리불존자가 눈길을 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존자는 승려의 차림으로, 보살이 아닌 승려 모습의 청문자(聽聞者, 부처에게 법을 청하고 듣는 사람)가 불화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에 더욱 주목을 끈다.

화기에 괘불 제작자 12명과 후원자 149명의 이름과 제작에 소요된 물품이 적혀 있는 것도 특징이다. 괘불 조성 불사를 담당한 승려 중 괘불을 그린 화승은 네 명으로 명옥(明玉) 스님, 소읍(少揖) 스님, 현욱(玄旭) 스님, 법능(法能) 스님이다.

괘불 조성 후원자 이름 뒤에 대부분 '양주(兩主)' '양위(兩位)'가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불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161명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괘불로, 이들은 괘불 바탕천에서부터 안료, 복장물로 쓸 물품, 소금, 후추, 장과 같은 식재료, 물품화폐인 삼베에 이르기까지 여러 물품을 시주했다.

임은호 기자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3D로 만나볼까?

국립중앙박물관, 유산 3D 제작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성보 눈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국보 반가사유상 등 문화유산 16건의 3D 데이터를 공개한다. 16건에는 금동반가사유상 2건을 비롯해 철제여래좌상, 금동관음보살입상, 금동여래입상 3건, 청동 금강령 등 성보가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3D 데이터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D 데이터는 VR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안으로 '백자 달항아리' 등 총 10건의 3D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 공개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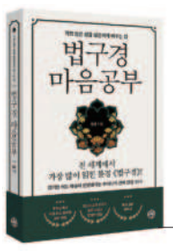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3	요가수트라(원전주해)	마하리쉬파탄잘리	동문선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5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6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 마음업 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7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동화가 있는 철학서재:동화에 빠져든 철학자가 전하는 30가지 인생철학	이일야 지음	담앤북스
10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 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법구경'서 건져 올린 사유의 정수들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스님 지음
유노책주/ 1만9000원

불교학자 정운 스님 전하는
'법구경' 대한 친절한 해설
게송 423수 중 66수 선별
"경전 읽는 즐거움 알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15년 동안 동서고금의 고전과 경전들을 탐독하고 그 안의 금언(金言)들을 옮겨 적었다. 이를 수상록으로 묶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의 제목으로 번역돼 전해진다. 톨스토이가 옮겨 적은 성현의 말씀 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 경전이 〈법구경〉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마저 매료시킨 불교 경전 〈법구경〉은 팔리어로는 〈담마빠다(Dhammapada)〉라고 하며, 이는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423수의 게송으로 전해지기에 읽기 쉬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히는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불교학자이자 경전 연구가인 정운 스님이 저술한 〈법구경 마음공부〉는 〈법구경〉의 금언 중 우리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 66수만을 골라 담은 책이다. 이는 스님의 40년 수행과 사유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법구경〉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선에서 자세히 해설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구경 마음공부〉는 단순히 〈법구경〉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는다.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법구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알아야 할 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교의 핵심 개념과 함께 알려 준다.

제1장에서 불교 교리에 대한 감이 잡혔다면, 제2장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성숙한 마음을 갖는 법을 이야기한다. 인욕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업'과 관련된다.

제3장은 나를 괴롭히는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는 장이다. 부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 내 눈을 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끈다.

제4장은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인연을 쌓는 법을 알려 준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 주는 내용이 가득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제6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통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죽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법구경〉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그래서 저자 정운 스님은 〈법구경〉의 잠언들은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대승불교 경전이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과 달리 〈법구경〉은 누구나 삶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짤막한 시를 통해 전한다. 이를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삶의 바른 행로를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올 것이다." – '여는 말' 中



▲저자 **정운 스님**은 동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대승불전연구소장, 〈한국선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가한 이래로 불교의 다양한 경전들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깨달은 바를 칼럼과 저서로 중생에게 전하고 있다.

책 속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Epictetus)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한 생각에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도 되지만, 지혜로운 부처도 된다(成佛成魔一念之間)"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또는 사건, 물건, 사람)을 고통으로 보느냐,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면 고뇌는 없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8만 4천 번뇌를 넘어서라'에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이야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시대에도 근거가 없는 악플을 달고 비방을 일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고대에도 저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내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부메랑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에서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잠시 출타를 할 때 늘 죽어 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짐을 꾸렸다고 한다. '섣달 그믐날(죽음)이 찾아오면 모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가니, 이를 미리 연습하자'라는 뜻에서 비롯한 행동이었다.

(중략) 법정 스님 말씀대로 죽음에 대한 염두는 생의 백서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다. 불안에 떨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 열심히 살자.

–'걱정할 시간에 집중하라'에서

불교 잡지 톺아보기

AI시대, 부처님 가르침 상기하다

월간 〈불교문화〉 5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5월호(통권 제285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 5월호 특집으로 '이 시대의 부처님'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조명했다.

송덕사 주지이며 행복문화연구소 소장인 원빈 스님은 'AI와 경쟁해야 하는 오늘 이 시대 붓다의 역할'을 주제로 중독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광법회 선덕(先德) 혜담 스님은 '부처님이란 누구인가'를 통해 팔상시현(八相示現)을 통해 부처님 생애를 설명하했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는 '테라와다 불교의 최고의 스승, 붓다'를 통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붓다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하며, 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통해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대승불교가 추구한 붓다'를 주제로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을 강조하며, 다불(多佛)과 다보살(多菩薩)이라는 관념은 붓다를 바라보는 대승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진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부처님 법(佛法)의 핵심은 무엇인가'에서 부처님의 법은 연기의 법칙, 삼법인, 사성제를 핵심으로 이뤄져 있음을 살폈다.

이밖에도 '지리산 생태 그림 순례, 대숲의 노래' '공부하는 불교,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불교와 의식과학' '슬기로운 수행 생활, 티베트 불교와 지오 스님의 수행 이야기' '5월 화요 열린 강좌, '지금, 여기'에서 '종교'의 의미를 되묻는다'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겼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 가족들의 감동 이야기

월간 〈불광〉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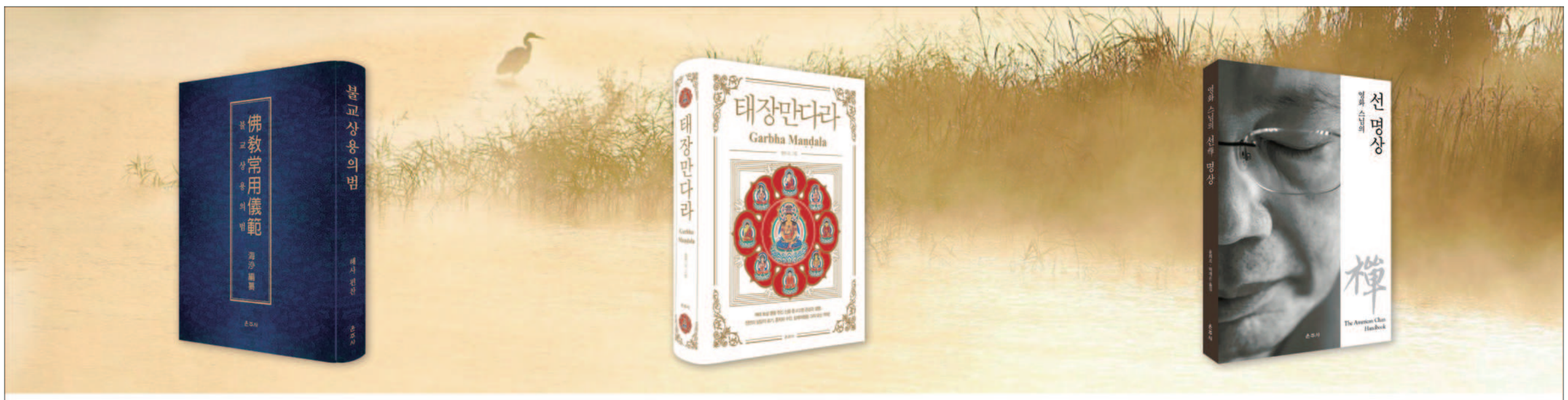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불교지 〈불광〉 5월호(통권 제595호)가 발간됐다.

5월호의 주제는 '붓다의 가족'이다. 경전 등 전해져 오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네 번에 걸쳐 고향인 까삘라 성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은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 6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 정반왕과 석가족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고, 두 번째 방문은 석가족과 외가뻘인 꼴리야족 간의 물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세 번째 방문은 아버지 정반왕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네 번째 방문은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다.

부처님의 네 번에 걸친 방문은 아버지 정반왕을 제외한 가족의 출가로 이어졌고, 석가족과 꼴리야족의 많은 청년 역시 출가했다. 첫 번째 방문 시 "사문이시여, 유산을 제가 물려주소서"라고 말하는 열두 살 남짓의 아들 라훌라에게 '출가'라는 유산을 물려줬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양모 마하빠자빠띠와 아내 야소다라가 출가했다.

사촌 간으로 추정되는 젊은 아난다는 첫 번째 방문 시 출가해 열반에 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했고, 후에 부처님을 배반하고 승단의 분열을 꾀한 것으로 전해지는 데와닷따 역시 친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간 불광' 5월호에서 아내 야소다라, 아들 라훌라, 양모 마하빠자빠띠의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 부모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신화화된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불전에는 조연으로 등장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부처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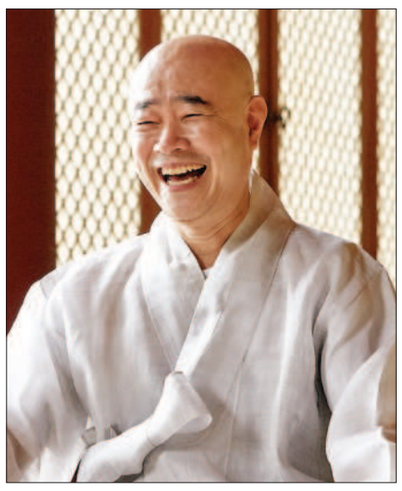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아바타명상으로 아미타 세계로 'GO!'



가자, 가자, 건너가자
월호 스님 지음
민족사/ 1만8500원

'화를 내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바타 관찰하는 '관찰자'
월호스님 '아마타 명상' 이론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가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분노나 화를 아무 때나 터트리면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참자니 병이 되고, 터트리자니 불화가 생긴다. 이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화를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 아바타가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내 마음과 몸은 아바타라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화를 내고 아바타가 즐겁고 아바타가 모험을 하는 것이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바로 '아바타 명상'의 창시자 월호 스님(사진, 행복선원장)의 말이다. 월호 스님은 〈가자, 가자, 건너가자〉에서 '아바타 명상 × 아미타 명상'이라는 부제로 아바타 명상의 최종판을 출간했다.

아바타는 본래 범어인 '아바타라(Avatara)'에서 파생된 말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한 분신(分身)·화신(化身)을 말한다. 〈서유기〉의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여러 명의 손오공을 만든 것이 분신이다. 그러면 아바타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월호 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건너 불구경하듯 대면해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서 한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아바타가 앉아 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아바타가 애착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아바타가 늙어간다. 아바타가 아파한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며 '아바타'이고 나는 그 아바타를 관찰하는 '관찰자'이다. 진짜 나와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실체(아바타)가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난다면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슬프다면 '아바타가 슬프구나'라는 것이다. 결국 '몸도 마음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것이 월호 스님의 아바타 명상법의 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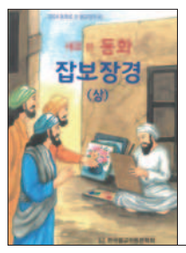
"아바타가 생로병사를 거듭하더라도 진짜 나는 아무 상관 없다. 진짜 나인 관찰자는 불생불멸(不生不滅)·불구부정(不垢不淨)·부증불감(不增不減)이기 때문이다. 태어나거나 소멸하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늘거나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게임 속 아바타(캐릭터)는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를 통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고 관찰자인 나에게 눈에 보이는 실체의 아이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인연법에 따라 원인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시간차만 있을 뿐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아바타 명상은 궁극적으로 아미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는 구체적인 실천 명상법이다. 내 마음을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을 진짜 나와 분리해서 내 것이 아닌 아바타의 것으로 알아차리고 아바타와 나를 분리해서 관찰하는 것. 그것은 결국 좋은 윤회를 이끌어 아미타의 세계로 가는 길인 것이다.

잡보장경, 동화로 풀어내다



새로 쓴 동화 잡보장경(상)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펴냄
1만5000원

〈잡보장경〉은 〈현우경〉·〈찬집백연경〉과 함께 불교설화 비유문학의 3대 작으로 불리는 경전이다. 이 경에는 본생담·비유담·인연담 등에 해당하는 총 121가지 이야기가 10권에 나뉘어 실려 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과응보'를 다룬다. 이처럼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주제로 하기에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도 유용하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 쓴 동화 잡보장경〉을 펴냈다. 불교동화작가 49명이 참여한 이번 동화집에는 〈잡보장경〉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해 동화화했다. 하권은 내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김일환 한국불교아동문학회장은 "팔만대장경에는 우주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라며 "〈잡보장경〉은 여러 비유를 들어가며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도 빠를 뿐더러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재미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티 소믈리에 되는 법이 궁금하다면



티 소믈리에
티 파커 지음
최경남 옮김
시그마북스/ 3만5000원

오늘날에는 음식과 어울리는 차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식사의 풍미를 더욱 향상시키는 이른바 '티 페어링'이 부상하면서, 티 소믈리에 또한 주목받고 있다. 서양식 또는 아시아식 식사에서 티 페어링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티 소믈리에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분석과 큐레이션, 조율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티 소믈리에가 되는 여정은 차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만 최고의 차 권위자인 티 파커가 저술한 〈티 소믈리에〉는 차라는 매혹적인 음료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고산 우롱부터 윤남 보이, 다즐링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배지들을 둘러보고 다양한 스타일의 차들을 선별하고, 만들고, 감상하는 방법을 담았다. 신중일 기자

'법화경' 속 사회복지사상 조명하다



불교사회복지
명안 스님 지음
운주사/ 1만5000원

대승불교 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에 녹아 있는 사회복지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서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이를 대승정신에 입각한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명안 스님은 일찍이 붓다의 가르침이 사회복지의 구현에 부합한다는 것을 깨닫고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 생활화에 부단없이 노력, 성남시 무료급식소 운영(1982년)을 필두로 연꽃유치원(성남), 동광 장애인복지재단(원주) 등의 대표를 역임했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불교사회복지에 적용코자 학업에 매진해 동국대(석사), 위덕대(박사) 등에서 학문적 토양을 쌓았다. 이 책은 정진과 학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책은 총 4장으로 이뤄졌다. 1장은 '불교사회복지의 이해'로 일반사회복지의 가치와 지식, 기술의 관계를 다뤘으며 '사회복지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기본성격과 보살신앙 등을 살피고, 끝으로 불교사회복지의 고유성을 통해 일반사회복지와 불교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비교해 분석했다.

2장 '법화경에 나타난 복지사상'으로 〈법화경〉의 인간관·원조관 등을 통해 복지사상의 근거를 찾아보았으며, 3장은 '불교사회복지사업과 실천'에서는 불교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업의 ESG 패러다임을 이해해 불교 고유의 UDI(Unique Diversity, Ideology)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모색하고 있다.

4장은 '불교사회복지사업과 실천과제'로, 불교사회복지 사상에 대한 교의적 가치의 재정립, 불교의 사회적 기능 논의 필요, 일반사회복지와의 균형(조화), 발전된 실천체계 구축, 사회적 함의 도출, 윤리에 기반한 공생 구현,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신중일 기자

자기 치유 전문가의 '긍정 확언'



루이스헤이의 긍정 수업
루이스 헤이 지음
이민정 옮김
김영사/ 1만6800원

세계적인 자기 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치유의 방법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선사해왔다. 이 책은 루이스 헤이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에센스만을 모아 21일 만에 '긍정 확언'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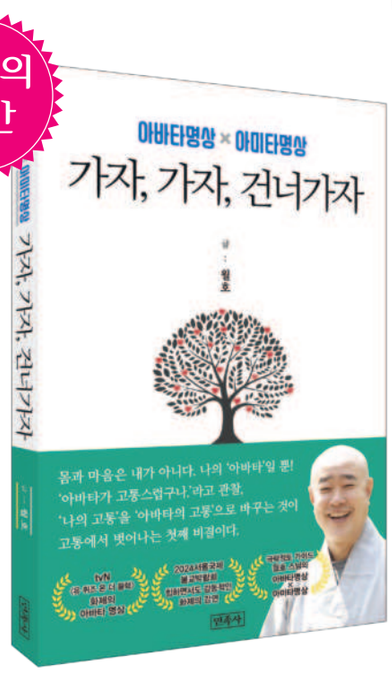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 책은 긍정 확언이 지닌 힘을 설명하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긍정 확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동안 그저 숙명으로 여겨왔던 숱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며, 그토록 바라왔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만의 긍정 확언을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누구와 함께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새 정원에 긍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키워내면, 그 결실로 당신과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신중일 기자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을 통해 아미타 세계로 들어가자!

화제의 신간



사바세계의 윤회게임에 지쳐 해탈게임으로 판을 바꾸려면
사바를 로그아웃하고 극락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 패스워드는?
"아미타바(Amitābha).

아바타명상 × 아미타명상을 통해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은 노·병·사에 대한 응급처방이며
아미타 명상은 영원히 병고와 죽음이 없는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것이다.
삶 속에서 훈련하기 좋은 실천 명상의 결정판!
글 월호 | 336쪽 | 18,500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아바타 명상
2024서울국제 불교박람회 힘하면서도 감동적인 화제의 강연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

속리산 산자락에 접어들자 내리던 비가 그쳐서 천지간(天地間)이 맑게 씻은 느낌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佛法)이 상주(常住)하는 도량답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는 지나칠 관문이 많았다.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는 현판이 붙은 산문(山門)과 금강문(金剛門)을 지나서 우람한 위용(威容)의 사천왕상이 지키는 천왕문을 거친 뒤에야 법주사 경내에 닿았다. 천왕문을 지나니 정면으로는 팔상전(八相殿)이, 왼쪽으로는 금동미륵불이 서 있었다. 경내에는 중생이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천상도(天上道)가 펼쳐져 있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나 올려다보는 게 숭고미(崇高美)의 본령(本領)이어서 필자는 숙연한 마음으로 팔상전에 참배해야 했다.

팔상전은 한국 최고(最高)이자 최고(最古)의 5층 목탑이다. 벽면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다.

필자는 거대한 크기의 미륵불로 걸음을 옮겼다. 미륵불을 최초로 조성한 것은 신라의 진표 율사이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축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금동미륵대불을 몰수해갔다. 3만여 명의 불자의 원력으로 2002년 금동미륵대불은 다시 조성될 수 있었다.

팔상전의 뒤로 국보 5호인 쌍사자 석등(雙獅子石燈)이 서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두 다리로 서고 두 팔로 받치고 있는 것은 8각의 화사석(火舍石)이었다. 그 석등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무명의 세상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다. 속리산의 법등(法燈)은 천년 동안 꺼지지 않고 혜명(慧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명 대종사는… 혜정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범어사 강원에서 고봉 대강백, 각성 대강백, 혼해 대강백에게 경전을 배우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에서 종교학 철학박사를 졸업했다. 법주사 주지를 재임하면서 청동미륵불 개금불사를 진행했으며, 매월 1회 미륵존불 철야기도, 10선 실천운동, 경전 공부, 홈페이지에 접하기 쉬운 불교 이야기 올리기 등을 시도했다. 초서체 한문으로 된 전체 주련을 정자 한자로 정리하고, 한글 번역을 하는 등 불교 쉽게 전하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9, 12,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동국학원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주사 조실로서 후학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원시불교의 선정설 연구〉, 〈천태의 불이철학〉, 〈하이데거와 히사마쓰 신이치의 무사상 비교〉, 〈만공의 선사상연구〉,〈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똥 속의 과일 줍기〉, 〈그것만 내려 놓아라〉, 〈한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등 저서 및 논문을 상재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염화실(拈華室)에 다다르니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내려서 건넨 뒤 지명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필자가 불자에게 삶의 지남(指南)이 될 말씀을 부탁드리자 지명 스님이 비로소 입을 뗐다.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끝없는 과거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출세 내지는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이 주어집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어려서는 아들딸의 역할을, 젊어서는 부부의 역할을, 늙어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사회관계에서는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등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소화하려면 우정과 사랑과 신의라는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부처님께서는 ‘천상이나 지상에서 오직 나 홀로 높다’고 설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나로서 충분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실천하기 어려운 보살도 수행자의 배역을 맡아서 충실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항상 그대로 있어야만 지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즉,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세계’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스님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주인공의 삶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지도자들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화합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견해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 맡게 돼
주인 되려면 보살도 수행자役 충실해야
眞我, 항상 그대로 있어야 지치지 않아

道人 알아보는 법, 사람 섬기는지 확인
해탈 이룬 사람, 저절로 자비심 구현해
방생의 자비 실천하는 사람이 곧 ‘道人’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원력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독교 광신도이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진영의 트집만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후학(後學)들에게는 발심(發心)을 요구했다.

“수행자의 길은 큰 발심이 없는 이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발심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안락을 주겠다는 발원입니다. 참선, 경학, 포교, 염불 기도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근기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는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교화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진작 보다 깊이 있는 포교 방법을 닦아 둘 걸’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참선을 중시하는 만큼 명상지도를 활용하거나, 시대변화에 상담심리와 명상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포교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종단 발전 위한 당부

지명 스님은 불교계가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율을 마련해야 한다. 이판승과 사판승이 나눠져 있듯이 채식하는 스님과 육식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수행전통을 지키고 있는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육식을 하고 있다. 일본불교도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 계율을 시대에 맞게 정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교계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종단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안도 선거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게 간추려야 한다. 가령, 불자들이 염불수행을 할 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염송(念誦)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살도 정신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님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스님들은 소수이고 다수는 청빈하게 생활하고 있다. 물질적 가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을 조명하고, 나아가서는 지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종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1년 예산은 대형 교회 1년 예산보다 작습니다. 명산에 위치한 명찰들이 많다 보니 외형적으로만 부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찰이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님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고도 사찰이 운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법과 의례 의식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쉽고도 간명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삶은 길고, 후회는 짧아야 한다!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길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인생의 완성기를 맞이하는 법!



2022 노틸러스북어워드 ‘의식적인 노화 부문’ 금상
2021 베스트북어워드 ‘건강·노화 부문’ 최우수도서
2021 베스트인디북어워드 ‘노화·노인학 부문’ 최우수도서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슬슬 몇 년 후가 걱정되는
어른들을 위한 마음 공부
코니 츠바이크 지음 | 권은현 옮김 | 624쪽 | 3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균형감 잃은 인생에 중심이 필요할 때,
마지막 순간,
붓다가 전한 지혜에 주목하라!

1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여천 무비 스님 추천!
일체중생 실유불성
一切衆生 悉有佛性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인류사의 명언이 탄생한 배경과
사상의 핵심을 톺아보는
자현 스님의 열반경 강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자현 지음 | 328쪽 | 양장본(올컬러) | 22,000원

지상백고좌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

“발심없는 수행은 고난…발심으로 나아가라”

12면에 이어

스님이 제시한 불교계의 개선 방안들은 스님이 수행자로서 살아오면서 몸소 체득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동진출가한 뒤 은사인 혜정 대종사로부터 수행과 포교가 다르지 않음을 배웠고, 법주사 문도(門徒)로서 금오 대선사의 올곧은 수행정신도 익힐 수 있었다.

“은사스님이 지어주신 제 법명은 지명(智明)입니다. 미욱한 제가 밝은 지혜를 얻길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 밝은 지혜를 얻는 것보다 중생을 위하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스님께 제 법명을 중생의 고통을 향해 울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지명(之鳴)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실, 불교의 본의(本意)로 보면 진정으로 밝은 지혜는 자비의 보살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인 혜정 대종사는 상좌들에게 “참선, 경학, 염불을 막론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포교는 잘 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수행이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명 스님은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고 깨어 있는 가운데 고요한 ‘성적등지(惺寂等持)’의 수행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상좌로서 스님이 회고하는 혜정 대종사의 모습은 자신에게는 칼날처럼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한 아량을 보여주었던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선지식이었다.

금오 선사 수행정신 계승 노력

스님은 법주사의 수행가풍에 대해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중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던 금오 대선사의 수행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오 대선사께서는 자나 깨나 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교리 공부가 참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은산철벽(銀山哲壁)을 마주한 것 같은 경계까지 나아가는 활구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금오 대선사는 화두 타파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에게 회향하는 데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오 대선사의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금오 대선사의 가르침대로 시대의 아픔을 여실히 관찰하고 그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명 스님의 이력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어떤 이유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묻자 스님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왕이면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했다.

지명 스님이 제안한 종단 발전 방안

①시대에 부합하는 현실적 계율 마련

②종단 지도자 선출 선거제도 변화

③교리 이해 · 실천 용이토록 간추려야

④소욕지족 실천 스님들을 조명해야

스님이 비교 체험한 동국대 불교학과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의 공부는 방식이 사뭇 달랐다. 한국의 공부방식이 산을 직접 등반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공부방식은 드론의 카메라로 내려다봄으로써 산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님은 인도, 중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각기 다른 종교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국적이 각기 다른 교수들은 스님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착상(着想)들을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님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화두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 위를 돌며 내려다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삼독심(三毒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시처처에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아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지명 스님의 저술 중에는 일본의 히사마츠 신이치(久松眞一)와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무(無) 사상을 비교한 논문이 흥미로웠다. 지명 스님은 이 논문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지명 대종사가 법주사 염화실에서 본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히사마츠는 정토교를 비롯해서 심지어 선(禪)마저도 초월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조계종 종정 서옹 예하가 일본에 유학할 때 히사마츠가 지도하는 수선회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불교적인 방식은 현상학의 기본인 질적 접근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무와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무와 죽음을 넘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미리 겪어 봄으로써 무 앞에 나타나는 실로 참다운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공(空)과 하이데거의 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하나’하는 표정이었다.

“서양철학은 ‘존재자’ 내지는 ‘실체’를 전제로 합니다.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보는 ‘현존재’를 밝히는 것이 존재자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는 데 유효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의 연기법과는 출발점이나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혹자는 불교의 공과 달리 하이데거의 무는 궁극적으로는 존재자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쓰였다고 평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서양의 철학에 다리를 놓는 데 하이데거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종교이고 하이데거는 철학자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주 선사는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했고, 다음에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방편이 무한한 불교에서 존재자의 유무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십선계 실천하라”

인터뷰를 마치자 스님은 법주사 경내까지 필자를 배웅했다. 팔상전에 이르러서 스님은 법주사의 수행가풍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법주사는 고대로는 진표 율사의 미륵사상과 유식사상이, 근대로는 금오 선사의 수행가풍이 계승돼 온 도량입니다. 안타깝게도 진표율사와 법상종의 유식사상을 잇는 구체적인 연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주사에서는 미륵신앙의 실천덕목인 십선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선계는 십악의 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선계는 죽이지 않고 살리고, 훔치지 않고 베풀고, 음란한 행동하지 않고 맑게 사는 등 몸으로 실천하는 3선에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고, 고운 말을 쓰고, 관계의 화합을 위해 말하는 등 입으로 실천하는 4선에 만족하고, 차분하며, 바른 지혜를 닦는 등 마음으로 실천하는 3선을 합친 것이다.

스님은 십선계 중 첫 번째인 죽이지 않고 살리기에 대해 부연하면서 방생의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 계율의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살생의 적극적인 실천이 방생입니다. 방생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해탈이 자신의 방생인 것입니다. 방생의 두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자신의 해탈을 이룬 사람은 자동적으로 남을 살리는 방생, 즉, 자비를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눌러도 막을 수 없는 자비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도인(道人)을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시시처처(時時處處)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지를 보면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도인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상냥하게 말할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존중할 것입니다. 방생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도인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자비심이 없는 사람도 방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최상의 복을 짓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방생하지 못하고, 방생을 찬탄하기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서야 필자는 스님이 왜 대화 내내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법주사에 주석하였던 조선시대 고승(高僧) 벽암(碧嵓) 스님은 “염송(拈頌)이 30편이요, 새겨진 경전(契經)이 8만 게송이로다. 어찌 뒤섞여 갈등을 일으키겠는가? 웃을만하도다”라는 게송을 남겼으니, 법주사 경내에는 도솔천(兜率天)의 미륵부처님이 미리 내려와 웃고 계시는 것이리라. 유응오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현대불교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⑩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선각여래좌상에서 산길과 계단을 오르면 남산을 대표하는 석불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늠름한 위용의 통일신라시대 석불이다.



‘부처님처럼 살겠다’ 다짐케 되는 남산 불상

선각여래좌상에서 산길을 따라가다 걸어가다 조금 힘들다 싶을 때 가파른 계단이 보인다. 이제 이 길만 오르면 남산을 대표하는 석불 좌상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이다. 큰 바위들이 나타날 때 고개를 살짝 들면 돌로 만든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광배가 등 뒤를 밝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부처님께서 남산의 계실 곳에 계시는구나!”

남산의 정상은 아니지만, 눈의 시선에 꽉 차오는 바위들의 정상에 부처님께서 꼿꼿하게 앉아서 굽어보고 계신다. 감히 가까이 갈 생각이 들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합장 인사 올리고 자리에 앉아 바라보게 되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이다.

나는 혼자 오든 아니면 신도들과 순례의 참배를 오든 불상 밑 이 자리에 땀이 마르도록 앉아 조금 쉬었다 싶으면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와보면 안다. 불상 밑 이곳은 20여 명이 와도 각자 좋은 자리를 찾아 앉기에 좋은 터이다. 남산의 자연과 부처님의 위신력을 느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일어서서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다. 그리고 혼자든 함께든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부처님 부처님처럼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뵙고 복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원 올리면 복 많이 주십시오. 부처님 복 많이 주세요.’ 나의 변함없는 기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기복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불교를 모르고 겉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나도 깨달음만 생각하고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싶었다.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자신의 못남은 보지 못하고 주위의 잘못만 지적하고 다그치고 있었다. 공부 많이 하고 한 소식 했다는 스님들에게 느꼈던 너그럽지 못하고 강압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경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깨달았으나 본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깨달았기에 중생을 위해 복덕을 나눠주시는 자비의 부처님이 보였다.

조금 어렵겠지만 불교의 법은 대상과 함께한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다.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는 변화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오온’인 ‘색’이라는 물질과 마음이라는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마음과 함께 나를 이룬다. 나라는 물질은 ‘사대’인 ‘지·수·화·풍’이 구름처럼 뭉쳐서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나라는 마음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같은 감각이 뭉쳐서 이러쿵저러쿵 ‘인연과’에 휩싸이게 하는 기운이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부처님 제자가 된다면 인과에 지지 않고 인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보살님 모습처럼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나의 세상 나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불자는 신에게 복을 기원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인이기에 복을 지어가는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존재에게 감사의 기원을 올리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도이다. 불교의 ‘기복’은 여기에 있다.

인과를 안다면 악업에 조심스러우나 인과를 알기에 선업에 당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제자라면 부처님께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부처님 복 많이 주세요.’ 나는 신도분들과 남산 순례를 함께할 때는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서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손을 하늘 높이 뻗으며 세 번 봉독한다. ‘부처님 복 많이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자고 말한다.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복이며 이 기복의 실천이 ‘자비희사’이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법의 가피를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깨진 바가지로 받고, 어떤 사람은 큰 바가지로 받는다.”

나는 어떤 바가지를 품고 있을까 스스로 살펴본다. 정진하고 기도하며 복덕으로 만들어진 큰 바가지를 품고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할까.

30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중생을 위해 베풀고 또 베푼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처럼 중생을 위해 베푸는 삶의 행복이 그 얼마나 행복으로 충만될까. 부처님처럼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기원하는 수행이 ‘불교의 기복’이다. 우리 모두 불국정토 남산의 순례길에 올라 기복하고 또 기복하자. ‘부처님.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많이 주세요.’



경주 남산 대표 석불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선각여래좌상서 나와 산길 오르면
만나는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늠름한 위용의 통일신라시대 석불
불상 앞 공간서 신도들과 참선도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앞에서 무진 스님의 설명을 신도들이 듣고 있다.

불교는 ‘기복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겨우 그 정도의 깨달음이 목적이라면 어디에도 쓸모없다. 깨달아서 자기 잘난 맛에 거룩하게 앉아서 ‘허허’하고만 있다면 그 깨달음 어디에 써먹겠냐는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실천과 행동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희사’에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중생을 위해 살다 가신 그 정신이 진정한 불교의 정신이다. ‘자비희사’의 복덕은 깨달음의 기본이며 깨달음의 실천이고 행동이다. 부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으로 ‘복 많이 주세요’하며 기복의 기도를 올리자. 그리고 실천하자. 복 많이 받는 불제자가 되기 위해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자.

〈반야심경〉을 동북아에서 봉독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부처님 말씀을 아주 짧게 압축한 경전의 위대함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이유겠지만, 손오공과 저팔계 그리고 사오정의 제자들과 구법의 순례를 다녀온 ‘서유기’의 ‘삼장법사’ 현장 스님과의 인연이 크다. 현장 스님은 600년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스님이다. 구법의 불심으로 사막을 건너고 산적들을 만나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도의 나란다 사원에 도착하여 경전을 공부하였다. 이후 현장 스님이 가져온 경전으로 중국 불교 아니 동북아 대승불교는 시대를 풍미하며 우뚝 서게 된다. 이후 동북아에서 현장 스님은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모범이 된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현장 스님이 인도를 다녀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여 역경을 이겨냈다는 일대기는, 우리 한국불교를 포함한 동북아 불교에서 〈반야심경〉을 중요하게 봉독하는 이유가 된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골짜기에 불두가 깨져 뒹굴고 있었고, 광배와 불신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1923년에 보수하였다. 불두의 코 이하는 파괴되어 있었는데 1970년 이전에 누군가 시멘트로 조잡스럽게 코와 입을 만들어 놓아 괴상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2006년 보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2007년 보수를 시작하여 얼굴에 부착된 시멘트를 벗겨내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 12월에 지금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광배에는 일제강점기 윗부분이 깨져서 사라진 것을 보수하여 놓았는데, 1963년 누군가에 의해 쪼개졌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2008년에 함께 보수했다. 광배에는 두광과 신광이 둥글게 새겨져 있는데 밖에는 불꽃이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고 신광의 안쪽에는 넝쿨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대좌는 위를 향한 앙련의 연꽃무늬를 새긴 연화대좌이다. 중대석 8면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안상이란 코끼리 눈이란 의미다. 그런데 안상이란 코끼리 눈이 아니라 성인이 앉거나 성스러운 물건을 올려놓는 평상의 다리 받침을 새긴 것이다. 누군가 안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대석은 팔각의 문양만 있고 일반적인 밑을 향한 연꽃인 복련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불상은 늠름한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 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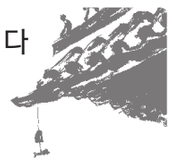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3호 | 15 | 전면광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5883-2255
010-7151-85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도심 속 깨끗한 사찰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40-1 관음정사
- 대지 106평, 건평 50평, 삼존불
- 모든 집기 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주차장 완비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010-9572-677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대지: 17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m,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
- 임야 : 20,000평 (1500평 : 전답으로 사용, 마을 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

010-3758-8039
010-5211-99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 대지 : 219평 전:289평 합508평 전 건축가능
-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2억 3천(절충가능)

010-3185-6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 가액 : 6억 9천

010-5519-771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3호 | 16 | 전면광고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福田)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점 연구원

- 음력 생일 숫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미래와 과거를 자신 있게 보는 법 전수
- 준비물 없음. 외우는 것 없음.
- 사주 막힘 없이 보는 법 확실히 전수함.

토화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60대 비구니스님입니다.

4월 초파일 행사 불사 도와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건 인과 영상들로 그려낸 '만다라'



이안의 Media In Buddha

㊴ 빌 모리슨 감독의 〈사건〉



단편영화 〈사건〉의 한 장면.

2014년 美시카고 총격 사건 조명
바디캠 등 영상 조합해 진실 좇아

마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곧고 굳은 심지가 있어야 할 나이, 어른이 어른다워야 할 나이, 그러니 이 정도 살아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쉬이 흔들리지 말아야 어른일 것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답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 고집하면 그것도 흉하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는 불혹이라 하지 않고 '꼰대'라고 한다.

사람만 그럴까?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그럴 것이다. 영화로 보자면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만나는 행사인 영화제도 그렇다.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보다 더 오랜 영화제가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영화&현실(Cinema&Reality)'이라는 주제로 116개국에서 출품된 3682편의 영화 가운데 국제 경쟁 39편, 한국경쟁 20편을 포함해 총 43개국 136편의 영화가 상영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잘 어른이 된 영화제다운 품새로 올해의 행사를 치렀다.

하필 개막식을 바로 앞둔 시기에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했다. 지난해까지 40여 개 영화제에 52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영화제 지원사업이 딱 10개 영화제에 절반 지원으로 혹독하게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뿐이랴. 국내외 큰 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세계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예산이 없다며 아예 없애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인들에게 뜻을 잘 세우고 자리잡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제의 모습으로 영화 손님들과 관객들을 맞았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먼저 '현실, 가상,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현재 영상문화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넓혀간 것도 좋았고, 영화 생태계 안에서 '촬영'을 통한 창작이 아니라 '발견'과 '구성'으로도 놀랍도록 창의적인 시선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파운드 푸티지' 기법 영화로 이름 높은 빌 모리슨 감독과 함께 한 것은 관객, 이론가, 영화창작자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게 말 거는 작업이 영화라는 것을 느끼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빌 모리슨 감독은 디지털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영화의 매체였던 필름 가운데 이미 다른 이들이 찍어놓은 필름-이것을 영화 용어로 푸티지라고 한다-들을 재사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가령 2021년 작 장편영화 〈빌리지 디텍티브: 송 사이클〉은 구 소련에서 1969년에 개봉한 〈마을 탐정〉의 푸티지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영화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망실되었다가 아이슬란드의 바닷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빌 모리슨 감독은 이 프린트가 발견되었을 때 구 소련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전에 잘 알려진 영화 필름이 버려졌던 것을 주운 것 정도로 넘어갈 일이 서양인의 시선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고대의 필름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사라진 것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렸다고 한다.

빌 모리슨 감독이 이미 사용된 필름, 이미 만들어진 영화, 촬영되었으나 잊힌 영화 등의 필름 더미들을 재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온 까닭은 "왜 이 영화는 보여지지 않는가? 왜 관객이 보이지 않는가"가 늘 의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질문의 범위가 셀룰로이드 필름이라는 물질적 폐기물에서 디지털로 확장된 최근 작품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30분짜리 단편영화 〈사건〉(2023년)이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포럼에서는 영어 원제 〈인시던트〉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에서는 번역 제목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다.

글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영화는 2014년 시카고에서 경찰관 여럿이 서있던 거리에서 마을 이발사인 라콴 맥도널드라는 청년이 경찰관 제이슨 반 다이크에게 무려 16발이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을 담고 있다. 이 영화를 구성하는 영상은 당시 거리에 설치되어있던 CCTV, 현장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동영상, 주위 자동차들이나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총격 당사자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들의 제복에 장착된 바디캠 영상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의도하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오직 이미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해서 '진실을 알리는 시선과 목소리'로 재구성한 놀라운 작업인 것이다.

경찰이 변명하고, 과장된 행동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카메라를 의식해 가며 여론과 언론을 의식한 발언과 행위로 수선을 떠는 동안, 그 현장의 모든 카메라들에 담긴 제각각의 시선과 충돌들이 스크린을 나누고 차지하고 밀려난다. 어떤 일을 우연으로 넘기면 '사고(accident)'가 되지만 인과 연을 펼쳐보면 '업을 짓는 사건(incident)'이 된다. 그러므로 파운드 푸티지란 영상들 사이의 인연을 발견하고 구성해서 빚어낸 영화적 만다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극장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듯 상업영화관이 아니라 단편영화제라는 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 영화들은 30분 안쪽의 짧은 시간 안에서 저마다의 고민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 〈범죄도시4〉가 영화관이란 영화관의 모든 스크린을 독차지하는 동안도 영화제들은 이렇게 영화라는 은하계가 펼쳐내는 세계관의 별자리들을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막작이자 한국단편경쟁 최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된 〈내 어머니 이야기〉(김소영, 장민희 감독)는 15분 남짓한 시간 안에 역사와 일생을 펼쳐보인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피난과 실향을 겪어내는 거대한 한국사 속에서 할머니가 된 엄마가 TV에 비친 풍경 하나에 고향을 떠올리면, 딸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움직이고 노래하며 할머니는 소녀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떠나온 고향이 되고, 두고 온 부모님의 목소리가 된다. 이 작품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애니매이션 작품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미덕을 한국적 이미지와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면서, 비극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실향민 할머니에게 소녀로서의 사랑과 희망을 되돌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 안에서 관객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이 작품도 영화제가 있기에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

가령 매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치러져온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또한 불교적 시선으로 영화라는 세계를 펼쳐 보이는 소중한 자리였다. 이 영화제를 통해 영화 자체가 불경을 두르고 있지 않아도, 스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배경이 절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불교적으로 인과 연의 고리를 통해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다.

굳이 불교영화제가 아니더라도 '충무로'라고 하면 한국영화를 일컫게 만들었던 그 대한극장이 66년 동안 밝혀왔던 스크린을 거두게 되었다는 소식은 영화의 인연이 다 했다기보다 영화 외적 셈법으로 소중한 인연을 무참하게 끊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한다. 영화제들이, 오랜 영화관들이 이익과 권력이 아닌 다른 가치의 인연으로 쌓은 공덕이 존중받고 보존될 수 있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⑲

1. 불기(佛紀)의 기준이 되는 것은?
① 부처님의 탄생 ② 부처님의 출가 ③ 부처님의 성도 ④ 부처님의 설법 ⑤ 부처님의 열반

해설 :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한 시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싯달타가 태어나서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③ 싯달타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④ 싯달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참상을 본 후

해설 :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3.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게 되는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시기 전에 비구들을 불러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다. 다음 중에서 일곱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② 법을 받들고 금기를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③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해야 한다.
④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해설 : 윗사람의 말이라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계율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면?

아난다여, 잘 들어라. (a)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b)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내 가르침대로 사는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나의 제자요, 제일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① a : 신 - b : 법
② a : 부처님 - b : 스님
③ a : 법 - b : 부처님
④ a : 자기 자신 - b : 법
⑤ a : 자기 자신 - b : 부처님

해설 : 다음의 내용은 부처님의 열반유훈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다.

5. 불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사찰은?
① 초문사 ② 불국사 ③ 이불란사 ④ 죽림정사 ⑤ 기원정사

해설 :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기증한 불교 최초의 사찰이다.

6. 기원정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깊은 산 속에 있었음
②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 함
③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금강경을 설하심
④ 제따(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함
⑤ 죽림정사와 더불어 초기불교의 2대 사원으로 불림

해설 : 기원정사는 깊은 산 속이 아니라 마을과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 걸식을 하던 불교교단의 특색으로 인해 마을로 걸식을 떠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가까워서도 안되기 때문이었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⑤ 2. ② 3. ⑤ 4. ④ 5. ④ 6. ①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⑩ 〈법구경〉(담마빠다) ①



▶한줄 요약
톨스토이는 불교 경전을 비롯해 성경, 철학서 등에서 금구(金句)를 발췌해 옮겨 적고 일종의 수상록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이 안에는 〈법구경〉 구절 58가지가 나온다.

톨스토이는 왜 '법구경'을 옮겨 적었나



그림 · 최주현

인생 알고 싶었던 톨스토이

눈이 뻑뻑하고 목이 아파서 고개를 들고 시계를 보니 자정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찍 잠들겠노라 생각했지만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는 나를 편안히 잠자리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읽을 책을 만들어야겠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자, 부처, 빠스깔, 신약 성경 등.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하다."

톨스토이가 56세이던 해 1886년 3월 15일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책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가 읽는 책들은 좀 특별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책들을 읽으며 금을 긋고 옮겨 적으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행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혼자만 읽기가 너무 아쉬워 수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그 좋은 구절들을 일기 형식으로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이 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톨스토이는 몇 차례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보강하면서 평생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내 손에 들려 있는 그의 책은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모처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현자들의 좋은 말씀을 읽어가는 데 뜻밖에도 자주 붓다, 부처라는 출처가 눈에 띕니다. 형광펜을 들고 표시해보니 약 58가지 불교 경전 구절이 잡힙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전 이름 하나만이 도드라지게 눈에 띕니다. 그게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이라고 출처를 밝히며 그 게송을 담은 것은 15편 정도입니다.

톨스토이의 종교는 러시아정교회입니다. 신을 섬기는 종교이지요. 그는 부유한 지주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젊은 시절에는 누가 봐도 한량인 듯 태평스레 세월을 보내고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군에 들어가서 전장에도 투입되는데 그 와중에도 글을 썼고, 마침내 소설가로서 아주 큰 인기를 얻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지구 위에 내던져진 목숨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런 물음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착 달라붙어서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구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현들, 철학자들의 책에서 길을 찾고자 했지요. 열심히 읽고 옮겨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색했습니다. 그가 읽고 좋은 구절을 옮겨온 텍스트로는 단연 기독교 성경이 압도적이지만, 애머슨, 소로, 아미엘, 루소, 플라톤, 쇼펜하우어 등등의 철학자들 책에서도 아주 많이 옮겨왔습니다. 동양의 책으로는 공자, 노자 그리고 불교입니다.

편히 살려면 편히 살다 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문득 내놓은 궁극적인 질문을 받은 순간 그의 평생은 대번에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의 이런 고뇌에 찬 인생에 부처님 말씀과 〈법구경〉 구절이 담겨 있다는 점이 불자인 내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천착한 톨스토이
법구경 등 고전 발췌해 수상록 펴내
'스스로 책임' 강조하고 있는 법구경
대문호도 부처님 정신에 감동했을 것

톨스토이가 소개하는 〈법구경〉 구절

그가 어떻게 〈법구경〉 구절을 필사했는지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싸움터에서 백만 군대에 이기는 자보다 위대한 승리자이다. 모든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낫다. 싸움터에서 남을 이긴다 해도 언젠가는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영원히 승리자로 남을 것이다."(299쪽)

"온유함으로 분노를, 선으로 악을, 인자함으로 욕심을, 진실로 거짓을 정복하라."(334쪽)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하고 스스로 악을 생각하며,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화한다. 죄에 빠지는 것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오직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 남이 너를 구원할 수는 없다."(428쪽)

"악인도 그가 행한 악이 아직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이 곪아 터졌을 때 악인도 악을 의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악에 대해, 그런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악을 거듭해가는 동안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악은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처럼 그것을 행한 자에게 되돌아온다. 하늘을 날아가도 바다에 들어가도 깊은 산 속에 숨어도,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에서 달아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515쪽)

늦은 밤 형광펜으로 그의 인용문들에 밑줄을 긋다 어쩌면 그의 걸출한 소설에 부처님 말씀이 녹아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주 잠깐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살던 시절 러시아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농노해방과 사회변혁의 욕구가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올랐고, 황제 일족은 비운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찰나였지요. 게다가 전쟁은 쉬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그 대혼란의 시기에서 과연 무엇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극도의 갈등과 살육의 세상에서 고민을 했고, 결국은 외부의 어떤 힘도 세상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들 각자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경멸하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인용한 〈법구경〉 구절에는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부처님 정신에 압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양으로 건너간 〈법구경〉

〈법구경〉은 불교경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서양에서도 일찍이 번역되었지요. 덴마크 학자 파우스 뵐이 1855년 빠알리어 〈법구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에 전파하면서 〈동방성서〉라고 불렸고, 근현대적 번역으로는 막스 뮐러의 영역(1870년)이 있는데, 이후 막스 뮐러의 번역본을 나름대로 윤문하면서 〈법구경〉은 서양의 철학자나 예술가, 사상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갔다고 합니다.(이상은, 전재성 역주 〈법구경-담마빠다〉 해제에서 참고 인용함) 어쩌면 톨스토이가 탐독한 〈법구경〉도 막스 뮐러의 번역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읽었는가-. 이것 아닐까요?

〈법구경〉은 423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자고 작정하면 하루 사이에 다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법구경〉을 읽는데 그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 경을 검색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독후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마음에 담아 둘 만한 가르침"이라는 정도의 간단한 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불교학자가 아닌 보통의 독자들이 남긴 〈법구경〉 독후감이 무척 궁금한데 아직 인상적인 후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며 얼마나 길고 진지한 독후감을 남겨야 하는지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인용된 〈법구경〉 구절들을 음미해보자니, 독자도 책을 잘 만나야 하지만 책도 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법구경〉이 톨스토이와 만난 것은 〈법구경〉과 톨스토이 양쪽에 다 행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톨스토이는 〈법구경〉을 읽고 또 읽으며 자기의 언어로 다시 써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나의 간절한 소망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사랑으로써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 성미가 급한 사람을 인내심으로 대하는 것,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서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300쪽)"라는 문장을 보자면, 대체 이 구절이 〈법구경〉 몇 번째 게송일지 궁금해집니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경전을 고쳐 쓴 것 아닌가 하여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미래의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짐작한 듯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은이의 생각을 나 자신의 말로 바꿔 표현한 것도 있다. 내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목적이 본디 지은이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저술가들의 위대하고 유익한 지적 유산을 많은 독자가 매일 쉽게 다가가서 읽고 최상의 생각과 감정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이 책을 통해 〈법구경〉이라는 불교경전을 처음 만난 동서양의 독자들도 많을 것이요, 그 자신도 수없이 〈법구경〉을 읽는 가운데 사색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 참 멋진 독자를 만난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스님의 한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앰프시설 명가에서 최고의 시설을 했다는 명산대찰에서 "제" 를 지내 본 염불 스님들이 한결같이 본사제품 시설 사찰들의 소리에 비해 염불이 힘이 든다는 하소연에 시설 총괄스님 (국장스님) 의 입회하에 본사의 초간편 최신형 디지털앰프 견본과 법당의 소리와 소리 비교 순간!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장난감 수준같은 현격한 소리차이에 귀를 의심하며 양쪽 소리를 계속 비교하시던 스님의 말씀 아!....내가 최신시대의 흐름을 너무 몰랐구나! 의 한탄 이었습니다.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법당서 소리비교시 상기의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누가 손해?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평균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스마트폰으로 일천만원 상당의 마이크 시리즈 소개, 본품도 이와같은 제품입니다. 주문택배시 20% 할인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행 스님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 그 줄을 잡고 가면 금강주를 얻을 것이다



그림 · 최주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총무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한테 여쭤 보시고 또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잘 지도받기를 바랍니다. 총무 스님한테 여쭤 보시면 초발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늙었으나 젊었으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의 차원을 기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또 좌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직껏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면 스스로 아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한 티끌 같은 불씨가, 마음의 불씨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사방천을 밝히고 오온이 스스로 밝아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온이 밝아서 스스로 돌아가니 칠보가 가득 차서 어디에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에고 발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눈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보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거죠. 모든 일체 유생 무생을 조화로써 한 점의 상투 끝 동곳에 바로 그 빛을 가지시고 우리들한테 항시 비춰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몰라서 항상 그렇게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서 그 줄을 잡으면, 그 줄을 잡는다는 것은 반야줄이라고도 하고 일심줄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 말씀하시기는 여의주라고도 했습니다. 그 여의주를 잡지 못하면, 모든 걸 여의고 줄을 잡지 못한다면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금강주에 의해서 화광주나 서광주나 흑광주, 야광주, 이 다섯 가지의 광주가 한데 합쳐서 스스로 돌아가는데,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 또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중생들을 한생각에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늠름하신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금강경 한 번을 제대로, 천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첫머리, 중간, 끄트머리 이 세 마디만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천 독을 하고 삼천 독을 한다 한들 그건 헛읽은 것입니다. 그런 걸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지금 컵도 있고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경이다, 컵이다 이러는 것은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지 속의 진의는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모습과 이름이 헛거가 아니지마는 여러분 앞에는 헛거예요. 왜 헛거냐? 사람이 한번 생각을 잘 돌려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법륜이 스스로 굴러서 바로 법의 양식이 되고 그대로 실상의 법의 도리가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깨치지 못해서 항상 그거를…. 그러니 중생이라고 부르고 사량이라고 하고 또는 아무리 굴리려 해도 아니 되니까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람 되기 위함이요, 사람 노릇 하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투기 위함이야. 그래서 공생, 공용, 공체로서 같이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성문이다 연각이다, 무슨 보살이다' 이런 문제가 거기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단, 그 한 티끌과 같은 한 불씨에, 바로 금강주는 있는 겁니다. 오관을 통해서, 이 오관을 통하면 그것이 가고 옴이 없이 보는 천체망원경이니, 이런 문제가 거기에 붙어 돌아가죠. 항상 얘기하지요. 오신통이라는 것은 지금 시쳇말로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었고, 전자에는 전자대로 오신통을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타심통이니 숙명통이니 또는 신족통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과학적으로 나온 말 좀 보세요. 컴퓨터니 천체망원경이니 또 천체영사기니 책정기니 탐지기니 무선통신기니…, 이것이 다 오관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쳇말로 해도 전자에 있던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 말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모두 각자. 나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나인 줄 아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다 소소영영하게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론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오십 가지 물감과 종이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십 가지 물감이 다 한 붓에 쓰여집니다. 물그릇 하나를 놓고 찍고 씻고 또 씻고, 여러 물감을 쓰려면 씻어선 또 찍어서 쓰고 이렵니다. 어떻겠습니까? 참 묘하지요.

그러면 진짜 물감은 어떤 걸까요. 또 진짜 물감이 없기 때문에 소소영영하게 찍어다 쓰면서도 하나 쓰면 하나 씻고 하나 쓰면 하나 씻고, 맹물에다가 연방 씻어 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소영영하면서도 한 장에다 조화 있게 그려 놓은 거를 누가 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그려 놓고 자기가 그렸단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마저도 공했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공하고 보니까 자기마저도, 그린 사람마저도 공했으니 어찌 '나'라고 할 수 있으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어찌 나만이 했다고 할 수 있으랴 해서 "얘들아, 보거라. 너희들은 그대로 공했느니라. 즉 공이며, 즉 색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는…. 그 단 두 마디 그걸 깨치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말을 하면서 행하면서 또 봐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책정을 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자기 한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 여러분,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 생명들과 친우같이 뭉쳤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가지고 이 몸뚱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선장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많고 물질도 많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생긴 것, 촌충이니 세균이니 뭐, 생김생김이 너무나 다양하게 생겼으면서도 소임을 제각기 아주 정교하게 맡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맥이니 동맥이니 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다양하게 맡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인 선장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이 한데 합쳐진 대표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 이끌어 가지고 나침반을 잘 놔서 책정을 잘해야만 오신통을 제대로 굴리는 겁니다.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 이겁니다. 내가 오신통에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는 얘깁니다. 그 오신통을 제대로 부려야 바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 나 나기 이전을 찾으려 말고 나 있는 데서 찾으라

☞ 19면에서 계속

거기에서 금강주는 빛이 밝고 또 거기에 하나만 모자라도 아니 되기 때문에 야광주도 필요하고, 흑광주도 필요하고 서광주도 필요하고 화광주도 필요하고. 다섯 가지의 광주를 금강주가 몰아서 같이 굴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강주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야광주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눈이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귀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몸이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부 한데 합쳐서 금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강주에는 모든 일체의 부처와 조사와 중생들이, 보이지 않는 중생 보이는 중생들이 다 그 안에 들었거늘 자꾸 이것저것 찾으면서 바깥으로 헤매고 돌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볼 때도 예전에 선조들이 해놓으신 것이 유래가 되고 또 보물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방편으로도 되는데 그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 한 점에 다 있으니 각각 보지 마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왜 각각들 봅니까? 미륵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각각 보고 전부 각각 행하니, 동서가 둘이라고 자꾸 볼 수밖엔 없겠지요. 그러나 동서는 둘이 아닙니다. 바로 한 점에 동서가 다 들어 있으니 동서를 따로 찾지 말고 물질을 따로 찾지 말고 따로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소소영영하게 물감을 꼭꼭 찍어다가 쓰면서도 다시 씻고 또 찍고 다시 씻고 이렇게 하는 그 소소영영함. 우리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소소영영하면서도 그것이 한마음의 뜻으로서 금강주에서 나가는 일이라 이 소립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신다면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그 자리나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나 앞으로 올 자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에서 지금 물질과 모습과 이름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속의 진의를 모르고 50%의 미완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편안함을, 편안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거는 이 몸뚱이가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가 오고 가려면, 우주정거장 하나 세운다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만들고 폐하고 또 만들고 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없이 고난을 겪고 실험을 하고 재정을 무수히 들여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여직껏 했다는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경쟁에 의해서, 억겁을 거쳐서 경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 습이, 아직까지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물건을 확대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한 점에, 살리는 칼도 있고 죽이는 칼도 있는데 여직껏은 살리는 칼이라고 하면서도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그런 태평성대의 중도에서 그 빛이 온 누리를 비춰서 평등하게 혼동이 오지 않도록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진리를 숭상하면서 우리가 한마음의 불씨로써 만법을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모습, 이름을 겸해서 응용하지만 무슨 삼강오륜이다, 손자병법이다, 호국 불교다 하는 게 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광주를 가지고 굴리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지금 세계를 보듯이, 앉아서 전부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해서 예전에 선조들이 구룡이라고 써 놨듯이, 그것은 삼광주를 얻었기에 스스로 용(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으로 그려 놓으면 용인 줄 알고 거북이로 그려 놓으면 거북이로 알지 마십시오. 종이와 먹으로 사람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도 다 그림이자 모습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숨은 우주의 법칙이, 그대로 열쇠가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고 열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천이 밝았는데 어찌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찌 아니 닿는 데가 있으랴? 너 아님이 없으니 어찌 중생 부처가 따로 있으랴. 모르는 중생은 과거의 나였고, 아는 부처는 현재의 나요, 미래의 부처들은 바로 미래의 나이니라. 그러니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나 아님이 없으니 작은 데는 작은 그릇대로 들어가 주고 큰 그릇에는 크게 해서 들어가 주고. 그러니 안 맞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둥글게 모든 게 다양하게 맞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등을 항상 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늘, 오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등불, 이 등불로 앞장을 설 수 있고 밝혀 줄 수 있지만 이 등불이 없다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로 억겁을 거쳐 온 그 습을 하나도 떼지 못할 겁니다.

종 문서는 내려놓고 다니나요? 짊어지고 다니지. 작년 콩씨를 심었을 때 그 콩나무로 다시 화한 것뿐이지. 그리고 콩나무는 콩씨를 또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콩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 문서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지 과거의 업이 있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과거의 나를, 나 나기 이전을 찾지 말고 나 있는 데서 찾으라는 거야. 모든 화두도, 자기가 나왔기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지 자기가 그대로, 그릇이 빈 그 자체가 바로 화두며 자기가 거기에서 한 점의 불씨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딴 데서 오는 것같이, 딴 데서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 불씨가 밝아져야 그 불씨를 보고서 부처님께서도 같이 한마음이 돼 주시겠지만, 암흑세계에서 그대로 돌고 부처님의 불빛을 보려고 안 하는데 어찌 부처님이 자꾸 도망가는 놈을 붙잡아다가 "이 불빛을 봐라, 불빛을 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고 계시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한 마음 주인공이라는, 이름해서 그 한 점의 마음에다 전화통 돌리듯이 거기다 맡겨 놓고 '아, 내 한마음이 바로 애의 한마음이니 내 한마음이 이러한데 애의 한마음도 자기 육신을 끌고 길잡이가 돼서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나와 같이, 내 맘과 같이 생각한다면 잘 갈 것을, 괜히 말로 욕하고 때리고 온통 야단을 벌이니까 집안만 혼란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되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언제나 상을 찌푸려야 하고, 그러니 복은 들어오지 않고 공덕도 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업보니 인과니 유전이니 또는 우환이니 이러한 문제 등등, 또 병고니 팔자 운명이니 이런 거 모두 여러분이 지어서, 모든 게 지어서 오는 것이지 누가 갖다 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름이라고 깔보려거든 아예 당신 이름을 불러, 성을 부르든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다 당신이 이날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 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해.'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다 놓는다면, 맡겨 놓고 참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홀연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거라구.

자기가 자기 길잡이가 돼야지 남이 길잡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초발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 그리고 내내 길잡이입니다,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있다, 둘이 있다, 또 육신이 꼭 와 줘야 된다, 가 줘야 된다 이런 모든 걸 떼십시오. 육신은 고달픈 거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음의 그 불씨는 우주를 쓸어안고도 남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고 편리하게 달나라에 가려 해도 감이 없이, 오고 감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즉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조화를 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러한 열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데도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아주 잘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그것만 가지고 늘어지지 말아라. 착을 두지 말아라. 또 남이 지나 내려온, 억겁을 거쳐 온 숙명을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네가 맘대로 다닌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 네 마음을 깨쳤다면, 탄생했다면 그 다섯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안으로 보임을 다시 하면서, 다시 체험을 하면서 안으로 굴려서 다섯 가지도 다 익혀서 네가 부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금강주로부터 누진을 통해서 다 부리는 것이고,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야. 그러니 보현 문수는 스스로 따르고 결국 자기, 자기라! 그래서 삼십이상이 그대로 밝아서 보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 보지 않으면 몰라. 물속에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 딴 사람들처럼 물속에 뭘 입고 들어가 봐도 깊이나 알지 다른 데 깊이는 몰라. 척 생각하면 다 알도록 돼 있는, 알아도 아는 척 안 할 때에 하는 것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누가 모르라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 모두 모르니깐 모르는 거지. 그런데 모르는 거를 또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깐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우주를 조절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삼광주를 얻는다면, 삼각원형을 이뤄서 밝게 돌아갈 수 있다면, 즉 스스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대천세계와 중천세계 소천세계를 한 손에 넣고 한 점으로써 모든 것을 다, 닿으면 닿는 대로 태울 수 있고 닿으면 닿는 대로 소소영영하게 코치할 수 있고 같이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편리한 법인가를 여러분이 잘 증득하기를 바랍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5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 바로 거기에서 홀연히 자기 생명수의 근원이
> 스스로서 나올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⑩ 입장을 바꿔보다

사고로 알게 된 남편의 진심, 문제는 나였다

부모님과 스승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한 번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가정의 달 5월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침마다 공부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235페이지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계산이 있으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울타리가 생긴다'는 대목을 읽으며 남편과의 입장이 달라서 힘들었던 민지(가명)님이 법담을 시작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시아버님께서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자, 남편은 어머님이 돌아가실까봐 두려움에 떨며 모든 걸 어머니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제게 손에 물 안 묻히고 그저 같이 살기만 하면 되니 무조건 본가에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고 잘 풀어가야 하는 주제라 늘 처음에는 좋게 의논하며 대화하다가 본가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남편과 '같이 못 산다'는 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니, 얘기 좀 하자며 커피 마시러 갔다가도 나중엔 언성이 높아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일쑤였죠. 결국엔 '당신 부모껜 당신이 해, 나는 우리 부모께 할 테니' 하는 식으로 싸우고 오니 체력 소모가 엄청났어요. 머리로는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보다 더 감내해야 하고 힘들어질 걸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그 일로 늘 트러블이 생겨 부부사이는 끝을 생각할 정도까지 악화되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극한 상황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탁 비워지기도 한다. 민지님은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얘기를 자주 듣곤 했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았다며 불화를 멈추게 해주었던 계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남편의 눈물을 보며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줬구나. 저 사람의 진심을 그동안 몰랐구나. 저 마음을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좀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일엔 출근 준비하느라 비록 화면을 못 켜고 듣기만 해도, 아침마다 이렇게 줌에서 〈금강경법문〉을 읽으며 공부해가다 보니,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금강경의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드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가며 부딪혔던 부분들이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어느 한 순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네요. '가족 안에서 내가 너무 나를 세우고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허상에 속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며 반성이 되네요."

"본가 들어가자"는 남편과 갈등
'불이(不二)' 가르침 덕에 이해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쇼윈도우 부부처럼 살았지만 법문을 통해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니 남편의 본모습이 보여서, 어제 저녁 남편한테 "늘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다.

"마음을 돌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둘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았고 제 마음을 알았기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딸이 어제 제게 엄마 얼굴이 정말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시댁에 가면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일부러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뵙고, 무언가를 드려야 할 때도 '왜 나만 하나, 아깝다' 하는 생각 없이 눈 딱 감고 드리고 오니 제 마음도 편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라는 게 다 허상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보이니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선 거겠죠?"

이렇게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듯 보이지만, 단단한 마디 하나가 생기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사고 덕분에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그냥 오는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 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자비방편인 것이다. 절에 가서 마음 비우고 있으면 즐겁다가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났던 자신의 모습이, 오늘 '불이(不二)'라는 법문을 공부하며 스친다는 민지님 말에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236쪽을 읽어본다.

"절의 입구에는 불이문(不二門)이 있습니다. 불이는 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이렇게 나와 부처님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입니다. 집과 법당도 따로가 아니고, 나와 미운 사람도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입니다. 무엇이든지 불이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으러 불이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불이를 보는 것이 상(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상을 떠나면 우리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부처인 우리가, 부처님한테 새삼스럽게 뭘 달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힘을 그냥 쓰면 그만이지요."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⑯ 척추 질환의 한방치료

침·부항치료, 혈액·림프 순환에 '효과적'

인간이 진화를 거치며 직립보행을 하면서 숙명적으로 척추와 관절의 질병이 따라오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척추질환은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해 보면 목척추(경추)와 허리척추(요추)의 디스크 탈출증, 인대와 근육의 염좌, 척추관 협착증, 골절, 척추 커브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질병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국소 통증과 방사통, 가동범위 제한, 보행장애, 마비 등의 증상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물론 운동이나 감각의 마비를 동반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척추의 기능적인 문제는 적절한 자기관리와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척추질환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원리와 효과는 어떤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같은 척추의 통증이라도 병인을 분류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풍, 한, 습, 습열, 기, 어혈, 좌섬, 담음, 식적, 신허 등의 내적 혹은 외적인 요인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의 치료는 크게 침, 뜸, 부항, 추나, 운동요법 등 물리적 자극치료와 한약, 약침 등의 약물 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경락 이론에 따라 통증 부위와 멀리 떨어진 곳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침치료, 부항치료 등은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 및 림프 순환을 도우는 한편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세한 척추의 부정렬 상태를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지만 한의학과 서양의 정골의학에서는 바르지 못한 척추의 정렬상태는 신체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통증과 가동 제한뿐 아니라 수면, 소화, 심폐기능 등 다양한 자율신경과 관련된 기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척추의 틀어짐을 바로잡는 것이 척추 통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중요하며 구조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침·뜸·추나요법 등 건강보험 포함
식이요법 병행도 일상 개선에 도움

물리적 자극치료에 비해 한약치료는 척추질환에 있어서 중요성이 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약물치료는 척추질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의학적 병인에 의해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해석해 처방하기도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예를 들어 보자면, 디스크 초기에 디스크 탈출로 인해 신경의 압박이 생기고 신경 주변의 염증이 생기는데 한약은 이 염증을 줄임으로 해서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을 줄여 줍니다. 한편 디스크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탈출된 디스크 수핵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 등 연부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면서 면역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연골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요통에는 활락탕, 만성요통에는 오적산 육미지황탕 등의 처방이 상황에 맞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침, 뜸, 부항, 한약 엑스제제 등 전통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온 치료법뿐 아니라 5년 전부터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분이 시술받기 좋아졌고 올해 2024년부터는 허리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는 한약(첩약)도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허리의 디스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척추 통증으로 일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되는 만성 척추 통증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운동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법들을 평소에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트랜스 지방-포화지방 등 질 낮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고 고단백식사, 오메가3(쓰리)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야채류 등의 항염증식단 또한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속단, 두충, 모과 등이 약재로써 혹은 차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만성통증에는 비타민D의 부족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햇볕을 쬐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약해진 고유수용성감각기능(관절 근육 인대 등에서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감각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트레칭과 균형감을 키우는 훈련과 함께 장기적인 척추 건강을 위해서 배, 등, 옆구리 등 코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한의 치료와 함께 한다면 만성 척추 통증 질환이라는 어려운 상대가 어느덧 극복 가능할 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김호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전법 일기

학생들의 굳건한 다짐
"108배 100번 할래요"

학교 법당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아침에는 평소 등교시간보다 30분이나 이른 시간임에도 예불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로 법당이 꽉 들어찬다. 칠정례(七頂禮)가 끝나고 반야심경을 외울 때쯤에는 불단 앞쪽과 어간에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서 삼배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다.

졸업생 중엔 3년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예불에 참석하며 자아를 탐구하고 인격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얼굴에 불안함과 우울함이 보이곤 했는데 2학년이 되어서는 얼굴이 편안해지더니 법당에 오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학기말이 되어서는 대표로 집전까지 맡았다. 3학년이 되어서는 "법사님 같은 교법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더니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교직이수를 하고 있다.

나 또한 학창시절 법사님 덕분에 청소년 전법을 시작했는데 또 한 학생이 나로 인해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교법사로서 전법을 해나갈 길이 어려운 길이라 제자가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리고도 싶었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기에 꿈을 응원해주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다. 학생들은 한 시간이라는 시간동안 점심공양도 하지만 잠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법당에서는 두 명의 학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108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108배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바로 '헛소문' 아닌 '소문' 때문이었다.

종교학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두 학생이 순수한 얼굴로 질문했다. "법사님!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108배를 하면 염주를 주시나요?" 그에 나는 웃으며 "그럼~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선물을 줘야지"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바로 법당에서 108배를 시작했다. 108배를 다 마친 학생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참회 발원문을 들으며 108배를 하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점심시간마다 법당에 와서 108배를 100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속으로는 며칠이나 갈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학생들은 여전히 1만800배 기도를 진행 중이다. 기도가 끝나면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줘야할지 고민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미 부처님이라는 선물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언제나 큰 광명을 놓고 있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된 능력과 빛이 있다. 학생 개개인이 잠재된 능력을 찾고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법사로서 나의 큰 원이다. 앞으로도 항상 일체유심조의 법문을 간직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그려나가고 싶다.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



송마나의 **시절인연**

편견 없는 어린이처럼…

이팝나무꽃이 폭설처럼 흩날리는 오월이다. 아카시아꽃 산사나무꽃 찔레꽃이 서둘러 흰빛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구름은 하늘 높이 노닐고, 청보리밭 뒷산에서는 뻐꾸기가 신록의 숲으로 들어오라고 노래한다. 우리를 부르는 오월의 환한 웃음소리에 어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오.

어린이 대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이리저리 뛰놀고 있다. 비릿한 연둣빛을 흔들어 깨우는 풋풋한 나뭇잎과 부풀어 오른 장미꽃보다 어린이들의 자유 발랄한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신생의 설렘으로 부풀게 한다. 유난히 5월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어린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계관 시인 워즈워스(1770~1850)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 설렐 때는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했다. 예수 또한 우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어린이는 인생의 무지개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아무 곳에서나 떼를 쓰고, 배가 고프면 운다.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염치나 거리낌이 없다. 딱딱한 예절이나 간교한 속임수를 모른다. 이별의 슬픔도 분단의 아픔도 모른다. 어린이는 순수 그 자체다. 그래서 장자는 참만고일성순(參萬古一成純)이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인간은 자고로 순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림 · 최주현

어린이는 대공원에 피어나는 튤립 꽃과 말을 하고, 철장 안에서 목을 길게 내민 기린과도 이야기를 나눈다. 사나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구불거리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만난 아이와 공놀이도 함께 한다. 그들에게는 분별이 없다. 꽃과 동물이 나와 다르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놀이터에 나오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뛰논다. 지배하는 자나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는 일체의 세계. 사람은 누구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이는 알고 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죽음도 없다. 말 못 하고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곁에 두고 말을 건다. 인형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이다. 어른들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생과 사의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돌아 볼 겨를이 없다. 공원에서 활짝 핀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꽃잎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겠는가. 현세가 끝나면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오늘을 죽는 것이요, 오늘을 죽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다"라고 현재(鉉齋 1919~2012) 선생님은 말했다. 생사는 일여(一如)다. 어린이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용지물이다.

나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떠올려 본다. 어린이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동한다. 무엇을 붙잡고 움켜쥐려는 집착 없이 마음에서 이끄는 데로 움직인다. 슬픔, 두려움, 후회 등의 번뇌에 휩싸이지 않으며 죽음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없다. 마치 파란 하늘에 구름이 그저 흘러가듯, 머무는 바 없이 마냥 뛰어노는 어린이의 마음.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오월이었으면 좋겠다. 〈작가〉

기자칼럼

보살님이 교회서 기도한 이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년째 포교를 하는 비구니스님은 어느 날 불자인 보살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찬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 보살님은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스님과 상담도 하고 기회가 될 땐 함께 축원과 기도를 올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불심을 닦아온 사이기 때문. 어떻게 된 연유인지 스님이 묻자 보살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일요일 예배에 데리고 갔는데 좋았어요."

스님은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보살님에게 자신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보살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간절하다"고 했다고. 스님은 이웃종교에 비해 병원법당 여건이 좋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법회 모시기도 힘든 상황이니 어디라도 의지하고 싶은 보살님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얼마 전 통화한 병원법당 지도법사스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다. 병원 주위엔 대형교회가 즐비하고 기독교에선 병원 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온다고. 기도비나 불사금은 고사하고 환자의 거동을 도와 법회를 볼 봉사자조차 드문 병원법당 현실에 스님은 통화 내내 슬픔에 잠긴 목소리였다. 다행히 십자가를 찼던 보살님은 얼마 전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봉행한 법회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 "법회를 보니 행복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한다.

병원포교를 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을 취재할 때면 "신심 깊던 불자도 병원에서 삶을 마감해야 할 때 개종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말을 듣곤 한다. 환자가 되니 불교는 날 찾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계층포교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 원력에 의지한 결과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인 '중생무변서원도'는 어디를 향하고, 자비의 등불은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는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이때 다시금 돌아볼 일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누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부처님 오심, 기쁨 그 너머의 성찰을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서구사회에서 불교는 핫(hot)하다. 특히 탈종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성종교의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도 말해진다. 탈종교화 현상은 기성종교의 제도적 권위 안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종교인구조사에서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는 통계가 거론된다.

그런 상황에서 서구사회 내부에서 불교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고, 종교 분야에서도 불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성 종교가 바라보던 세계관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력에 압도된다. 이것이 기성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부정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기성종교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게 된다.

그렇지만 과학이 삶의 모든 부분을 메꾸어 주지는 않는다. 자연스레 과학이 제시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면서도, 삶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체계를 기대하게 된다. 불교는 그런 점에서 서구 세계에서 탈종교화 시대의 대안체계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멀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침을 전하신 뜻을 되새기고, 동시에 우리는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날이다. 단순히 기뻐

탈종교시대 서구에서 각광받는 불교
미래 기다리기보다 설계하는 불교를

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신 후 단 45년 만에,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도 세계를 뒤덮었다.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기성종교와 오래된 문화 전통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또 대체되었다.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귀의자를 확보했던 가르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늘 고민의 대상이다. 좋은 가치관, 좋은 세계관을 전하는 가르침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압도적인 확산력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어야만 그만한 확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의 신행과 생활이 다시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님들과 교단의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가르침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쉽고 명료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으로서 불교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 불자 누구나의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을 재촉하는 한마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을 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구동성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처님 오신 의미가 우리 스스로에게 와닿는 한마디로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구동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불교인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불교, 불교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일이 멀지 않아야 하는 5월, 부처님오신날이다.

지방이 살아야 불교도 산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인구절벽'이라는 초유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담론으로 포착하고 있다.

사실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교계도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 위기는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점을 찍은 불교 인구는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 인구의 감소는 출가자 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사찰의 유지 및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며,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불교의 존재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결국 불교의 쇠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은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나 인근 중핵 도시 등으로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 공

지방인구 줄며 불교인구 감소 가속
지역 삶의 질 향상, 불교도 나서야

동화(人口 空洞化)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 인구의 감소는 전국적 차원의 불교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문제를 훨씬 심화시켜 지역 불교의 위기로 나타난다. 지방소멸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었다는 점은 폐사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농어촌을 넘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 확산했음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담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만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장기간에 걸쳐 그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관계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방소멸과 그에 준하는 위기를 마주한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지방을 수도권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나야 지역 불교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사찰이 위치한 해당 지역을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불교가 축적해 온 풍성한 문화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게 해야 한다.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타지에 머물러 있는 관계 인구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불교와 사찰이 지역사회의 동반자이자 좋은 이웃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얻을 때 지역 불교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社 說

청년 전법에 지속적 관심을

최근 불교가 젊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4월 28일 봉은사에서는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9개 대학, 120명 대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찬불음악축제'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한국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며 청년 전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월 29일 조계사에서는 대학생 불자들의 단기출가 입재식이 봉행됐다. 남행자 4명, 여행자 5명은 5월 4일까지 단기출가를 통해 출가 정신을 배웠다. 4월 30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 정진을 함께 하기도 했다.

조계종립 동국대도 청년·대학생 전법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린 건학위 최고·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돈관 스님은 3000여 대학생 불자 양성을 발원했다. 이를 위해 서울캠퍼스 14대 단과대학과 WISE캠퍼스 6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이 추진되고 있다. 당장 연등회 제등행렬에 2000여 동국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확인됐듯이 M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불교는 소위 '힙한 종교'로 통한다. 이는 높았던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단순히 1회성 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 것도 불교계가 할 일이다. 무엇보다 '청년 전법'에 진심인 지금의 원력이 꾸준히 지속되길 바란다.

도난 불상 무주상보시 日사례 '귀감'

일본 불교에도 불상이나 불화 등의 도난 사례가 있나보다. 일본 나라현 가츠라기시 다이마데라(當麻寺) 산내암자인 넨부츠인(念仏院)은 지난해 8~9월 경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다문천왕상 2구를 도난당했다. 특히 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에 조성된 수작이었다고 한다.

올해 1월 아미타여래불상이 인터넷 옥션에 출품됐고 이를 인지한 현지 경찰은 출품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출품자는 80대 남성이 매각을 요청했음을 진술했고, 결국 80대 노인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문제는 해당 불상이 이미 낙찰돼 불상 애호가 호키 에이타 씨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난된 불상임을 안 호키 씨는 조건 없이 불상을 넨부츠인에 반환했다. "워낙 수작이라 떠나보내기는 아쉽지만, 본래 사찰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난품인지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선의취득'은 도난 성보문화재 문제에 있어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비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찬찬히 되짚어 볼만 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